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최근 경제동향
국내경제전망
이슈분석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2013. 6.

한국경제연구원

집 필 진

변 양 규	연 구 위 원
김 창 배	연 구 위 원
최 남 석	부연구위원
이 진 영	부연구위원
이 경 희	선임연구원
강 소 라	연 구 원

〈 차례 〉

요 약 V

제I장 최근 경제동향 1

 1. 경제성장 3

 2. 수출입(통관기준) 및 경상수지 5

 3. 물가 11

 4. 고용 및 노동 14

 5. 금리와 환율 18

제II장 국내경제전망 21

 1. 대외 여건 23

 2. 2013년 국내경제전망 40

제III장 이슈분석 : 주요 산업별 경기 점검 및 정책 과제 55

 1. 검토배경 57

 2. 산업별 현황 및 전망 58

 3. 산업별 엔저의 영향 분석 72

 4. 시사점 78

부 록 81

〈 표 차례 〉

〈표 I-1〉 최종수요항목별 증가율 및 성장기여도.....	4
〈표 I-2〉 경상수지 추이	10
〈표 I-3〉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12
〈표 I-4〉 연령별·산업별 취업자 증감	17
〈표 II-1〉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23
〈표 II-2〉 유로 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24
〈표 II-3〉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25
〈표 II-4〉 아베노믹스	26
〈표 II-5〉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27
〈표 II-6〉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28
〈표 II-7〉 세계 석유 공급 전망	31
〈표 II-8〉 해외 주요기관 유가(기준유가) 전망	34
〈표 II-9〉 주요 투자은행들의 환율 전망	38
〈표 II-10〉 전망의 주요 전제 수정	40
〈표 II-11〉 연초 이후 주요 공공요금 인상내용	50
〈표 III-1〉 주요업종의 수출증가율 하락	57
〈표 III-2〉 주요국 조선산업 주요지표 비교	59
〈표 III-3〉 조선 부문 주요지표	60
〈표 III-4〉 철강부문 주요지표	62
〈표 III-5〉 자동차 부문 주요지표	64
〈표 III-6〉 일반기계 산업 주요지표	65
〈표 III-7〉 반도체 제조업 주요지표	67
〈표 III-8〉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주요지표	67
〈표 III-9〉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주요지표	68
〈표 III-10〉 가정용 기기 제조업 주요지표	69
〈표 III-11〉 석유화학 부문 제조업 주요지표	71
〈표 III-12〉 한·일 산업별 수출경합도 추이(2012년 기준)	73
〈표 III-13〉 한·일 산업별 수출경합도 추이(2013년 기준).....	74
〈표 III-14〉 한·일 제조업 업종별 수출경합도 장기패턴 분석	75
〈표 III-15〉 수출합수 추정 결과	78

〈그림 차례〉

〈그림 I-1〉 실질 GDP증가율 추이	3
〈그림 I-2〉 수출증가율 및 일평균 수출	5
〈그림 I-3〉 주요 품목별 수출증가율	6
〈그림 I-4〉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	7
〈그림 I-5〉 수입증가율 및 일평균 수입	8
〈그림 I-6〉 용도별 수입증가율	9
〈그림 I-7〉 수출입 및 무역수지	9
〈그림 I-8〉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및 생산자물가	12
〈그림 I-9〉 아파트매매가격	13
〈그림 I-10〉 아파트전세가격	13
〈그림 I-11〉 명목임금	14
〈그림 I-12〉 실업율 및 고용률	10
〈그림 I-13〉 빈 일자리 및 입·이직	16
〈그림 I-14〉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18
〈그림 I-15〉 원화환율	19
〈그림 II-1〉 국제유가 추이	29
〈그림 II-2〉 2013년 세계 원유 수요 전망	30
〈그림 II-3〉 세계 원유재고 추이	31
〈그림 II-4〉 NYMEX-WTI 선물옵션 투기 포지션	33
〈그림 II-5〉 금	35
〈그림 II-6〉 구리	35
〈그림 II-7〉 알루미늄	36
〈그림 II-8〉 니켈	36
〈그림 II-9〉 옥수수	36
〈그림 II-10〉 소맥	36
〈그림 II-11〉 달러 인덱스	39
〈그림 II-12〉 엔/달러 환율	39
〈그림 II-13〉 달러/유로 환율	39
〈그림 II-14〉 위안/달러 환율	39
〈그림 II-15〉 주요 기관 2013~2014년 한국경제전망	42
〈그림 II-16〉 소비심리지수(CSI)	43
〈그림 II-17〉 가계 평균소비성향	43

〈그림 II-18〉 2008~09년 전후 민간소비 금액 및 증가율 추이	44
〈그림 II-19〉 설비투자압력	45
〈그림 II-20〉 BSI(업황 및 설비투자)	41
〈그림 II-21〉 SOC관련 예산 추이	47
〈그림 II-22〉 수도권 전세가 비율	47
〈그림 II-23〉 건설수주와 건설투자	48
〈그림 II-24〉 기대인플레이	51
〈그림 II-25〉 GDP갭	51
〈그림 III-1〉 조선부문 주요지표	60

I. 최근 경제동향

- 성장률, 2013년 1분기 전기 대비 0.8%에 그침
 - 2011년 2분기 이후 8분기 연속 1%대 미만 기록
 - 단기적으로는 미국 재정부실 문제, 대내적으로는 북핵문제 등이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
 - 전년동기대비 성장률은 2009년 3분기(1.0%) 이후 최저수준인 1.5%
 - 설비투자 부진 지속, 민간소비는 감소, 건설투자는 일시적 반등
 - 설비투자, 전기 대비 2.6% 증가했으나 전년동기대비는 감소세 확대 (전년동기대비: -5.2%(2012, 4/4) → -11.9%(2013, 1/4))
 - 민간소비, 전기 대비 0.4% 감소: 0.8%(2012, 4/4) → -0.4%(2013, 1/4)
 - 건설투자, 전기 대비 4.1% 증가했으나 지난 1년여 기간의 부진에 대한 반등효과 일 가능성. 최근 건설수주 감소세 확대 등 고려할 때 회복의 지속성은 낮아 보임
- 수출, 3월 이후 증가세로 반전, 하지만 상반기 전체로는 정체수준
 - 수출, 3월(0.2%), 4월(0.4%), 5월(3.2%), 1~5월 평균(1.2%)
 - 5월중 일평균 수출액, 21억 달러로 전년동월비 1.0% 증가
- 수입, 2월 이후 마이너스 증가율 지속
 - 수입, 3월(-2.0%), 4월(-0.5%), 5월(-4.8%), 1~5월 평균(-2.8%)
 - 5월 중 일평균 수입액 18.4억달러로 전년동월대비 7.1% 감소
- 경상수지, 1~4월중 139.4억 달러 흑자, 전년동기(42.9억 달러) 대비 개선
 - 상품수지 흑자가 확대되고 서비스수지도 흑자 전환한 데 기인

- 상품수지(억 달러): 43.6(2012. 1~4월) → 129.3(2013. 1~4월)
- 서비스수지(억 달러): -1.0(2012. 1~4월) → 9.6(2013. 1~4월)

■ 소비자물가는 1%대, 생산자물가는 마이너스 증가율 지속

- 소비자물가, 전년 11월 이후 7개월 연속 1%대 (1~5월 평균 1.3%)
 - 농축수산물, 공업제품 등 상품물가 증가율 둔화에 기인
 - 반면 서비스 물가는 집세 상승의 영향으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
-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10월 이후 마이너스 증가율 기록
 - 4월중에는 전월(-2.4%)보다 더 큰 폭(-2.8%)으로 하락

■ 고용, 양적 양호, 질적 저하 현상 지속

- 취업자 증가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실업률도 점진적 하락세
 - 취업자(만 명): 34.2(2012, 4/4) → 25.7(2013, 1/4) → 34.5(4월)
 - 실업률(%): 3.4(1월) → 4.0(2월) → 3.5(3월) → 3.2(4월)
- 하지만 청년취업자 감소세 심화, 고령취업자 증가세 확대
 - 15~29세(만 명): -8.0(2012, 4/4) → -11.7(2013, 1/4) → -13.3(4월)
 - 50세 이상(만 명): 43.5(2012, 4/4) → 37.7(2013, 1/4) → 44.4(4월)

■ 시장금리, 기준금리 인하(5/9, -0.25%p)에도 불구하고 상승

- 추가 인하 기대 약화, 미국 양적완화 축소 가능성 등의 영향으로 상승
 - 국고채(3년): 2.63%(2013. 2/28) → 2.49%(4/30) → 2.77%(6/18)
 - 회사채(3년, AA-): 2.99%(2013. 2/28) → 2.85%(4/30) → 3.13%(6/18)

■ 원/달러환율, 1~4월 경상수지 흑자 확대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와 북핵 리스크 등으로 상승(원화가치 하락)

- 4월 중순 이후 북핵 리스크 완화 등으로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이 5월 이후 다시 상승하는 모습
 - 원/달러 환율: 1,112.1원(2013. 3/19) → 1,108.1(4/30) → 1,128.3(5/31)

■ 현 경기국면에 대한 판단

- 대내외 불확실성 지속에 대한 주요 경제지표 부진
 - 수출, 1~5월 1.2% 증가에 그치는 등 미약한 회복세
 - 생산, 1분기 증가율 작년 4분기 대비 오히려 하락
 - 취업자, 청년층 취업 부진 등 고용의 질적 저하 지속
 - 소비자 물가, 전체적인 수요 부진의 영향으로 저물가(1%대) 상황
- 이에 따라 경기가 하강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
 - 동행지수 순환변동치 하락, 생산·재고 순환도 여전히 하강국면

II. 국내경제전망

1. 대외 여건

- (세계경제) 하반기 세계경제는 당초 예상보다는 제한적인 회복세 전망
 - (유로지역) 성장친화적 정책에도 불구하고, 은행권 부실, 신용경색, 투자·소비 위축 등이 상호 부정적인 피드백으로 작용하면서 하반기 중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
 - (미국) 시퀘스터 발동 효과, 양적완화 축소 관련 불안심리 등으로 하반기 미국 경기회복이 다소 약화될 가능성
 - (일본) 아베노믹스의 경기부양 효과가 예상되나 부작용(금리상승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와 실물경기 회복 지연) 또한 만만치 않아 회복세 약화
 - (중국) 내수·서비스업 중심으로 성장전략이 수정되면서 예상보다 낮은 경제성장률

을 시현할 전망

- 서비스업은 생산효율성면에서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 열세
 - 생산가능인구 감소, 주요 수출 시장인 EU의 경기침체 지속 등
 - 중국 지방정부 부채 증가, 그림자금융 규모 급증 등 금융 불안 등
- (국제유가) 전반적인 수요 약세 속에 非OPEC 생산 증가로 인한 공급확대, 지정학적 리스크 및 투기수요 약화 등이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전망
- (수요측면) 하반기 세계경기회복세가 크지 않아 전반적인 원유수요는 약세(신흥국 수요증가가 선진국 수요부진에 의해 일부 상쇄)
 - (공급측면) OPEC 생산의 소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非OPEC 생산 증가가 예상되면서 수급측면에서 다소 여력이 있는 상황
 - 전 세계 석유재고도 2013년 1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지정학적 리스크) 이란 대선에서 중도파인 로하니의 승리로 서방과의 핵협상 재개 가능성 커짐. 이란 리스크로 인한 유가 상승 가능성 완화
 - (투기요인) 원유 선물시장의 순매수 포지션이 일정한 밴드내에서 반등을 보이고 있는 등 투기 요인에 따른 유가상승 가능성 낮음
- (주요국 환율) 달러강세 속에 엔화 및 유로화 약세, 위안화는 완만한 절상 지속
- (미달러) 상대적으로 양호한 미국 경제, 양적완화 축소 등이 하반기 달러 강세 요인
 - (일본엔) 추세적 엔화 약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아베노믹스가 의도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엔화가치 변동성 확대
 - (유로) 경기 회복이 하반기에 불투명하게 전망됨에 따라 약세 전망
 - (중국위안) 위안화 절상 기조는 당분간 유지 전망

- 다만 성장 둔화, 자금유입 감소 등을 고려할 때 강세 속도는 완만

2. 하반기 국내경제전망

■ 성장률: 1.7%(상반기) → 2.9%(하반기), 연간 2.3%

- 2013년 하반기, 추경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하고, 3% 미만의 낮은 성장률(전년동기대비)에 그칠 것으로 전망
 - 대외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당초 예상대비 악화
 - 미국: 양적완화 축소, 국가부채한도 협상 갈등 등이 회복 제약요인
 - 중국: 질적 성장 전환으로 8% 이상의 경기부양책 추진 가능성 낮음
 - 일본: 아베노믹스 효과가 실물경기 회복으로 연결될지 불확실
 - IMF 세계성장률 전망치 지속적 하향: 3.9%(2012. 7)→3.3%(2013. 4)
 - 대내여건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
 - 추경의 세출 증가는 약 7조 원에 불과, 기준금리 인하도 파급효과 제한
 -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조짐, 고용 둔화, 주택시장 조정 등으로 소비 감소
 - 과도한 경제민주화 조치 등에 따른 투자심리 불안
- 민간소비: 1.5%(상반기) → 2.0%(하반기), 연간 1.7%
 - 소비회복 제약 요인들: 가계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 서비스, 고령층, 여성 등 저임금 부문 중심의 고용증가세, 주택시장 조정(매매가격 하락, 전세가격 상승) 과정 진행 중
- 설비투자: -7.8%(상반기) → 4.3%(하반기), 연간 -2.0%
 - 기저효과 등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벗어나겠지만
 - 예상보다 미흡한 수출회복세, 경제민주화 등이 투자 회복 제약
- 건설투자: 2.8%(상반기) → 2.0%(하반기), 연간 2.3%
 - 민간건설 부진 지속되면서 상반기보다 증가율 하락
 -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가 지난해 2분기 이후 1년여 간 마이너스 지속

- 수출(명목, 달러)증가율: 3.0%(상반기) → 4.6%(하반기), 연간 3.8%
 - 글로벌 경기회복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 빠른 수출 증가세 제약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일본의 아베노믹스의 실패, 독일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유로존의 정치불안 등

- 수입(명목, 달러)증가율: -0.5%(상반기) → 6.6%(하반기), 연간 3.0%
 - 국내경기 회복 지연, 원자재 가격 안정세 등의 영향으로 수입 증가세는 하반기 중 한자리 수에 그칠 전망

- 경상수지(억 달러) 흑자: 222.8(상반기) → 207.9(하반기), 연간 430.7
 - 하반기 중에도 상반기와 유사한 규모의 흑자 지속 전망
 - 수출증가율이 크지 않지만 수입증가율도 제한적이어서 대규모 상품수지 흑자가 하반기 중에도 지속될 전망

- 소비자물가: 1.3%(상반기) → 2.4%(하반기), 연간 1.8%
 - 하반기 상승률은 약 2.4%에 그치고 연간으로는 1%대 후반이 예상
 - 낮아진 기대인플레이션율, 디플레이션 등을 감안할 때 공공요금, 식품가격 인상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
 - 국제원자재 하향안정, 원/달러 환율 하락 등 비용측면에서도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은 편

- 취업자증감, 28.0만 명(상반기) → 26.4만 명(하반기), 연간 27.2만 명
 - 하반기 경기회복 지연이 예상되는 가운데 경기순응적 패턴을 보이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상반기에 비해 다소 줄어들 전망

- 회사채수익률(3년, AA-): 3.0%(상반기) → 3.3%(하반기), 연간 3.2%

- 2013년 하반기 시장금리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기준금리 추가 인하 가능성이 약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양적완화 조기 종료 가능성 등으로 국내채권가격 하락하면서 금리 상승압력

■ 원/달러 환율: 1,100.4원(상반기) → 1,086.0원(하반기), 연간 1,093.2원

- 경상수지 흑자, 상대적 양호한 자본시장 여건 등이 원화 절상 주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미국 양적완화 조기 축소 논란에 따른 달러 강세, 대내적 환율 정책 등이 환율하락을 제약할 것으로 보임

2013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국제수지부문))

구 분	2012년			2013년			2014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GDP	2.6	1.5	2.0	1.7	2.9	2.3	3.4
(SA, 전기비%)	1.2	0.3		1.4	1.5		
민간소비	1.2	2.2	1.7	1.5	2.0	1.7	2.5
건설투자	-1.9	-2.4	-2.2	2.8	2.0	2.3	2.4
설비투자	2.3	-6.1	-1.9	-7.8	4.3	-2.0	5.6
소비자물가	2.7	1.7	2.2	1.3	2.4	1.8	2.7
경상수지(억달러)	137.5	293.9	431.4	222.8	207.9	430.7	342.3
상품수지(억달러)	111.3	272.0	383.4	205.4	232.7	438.1	359.9
수출(억달러, BOP기준)	2734.1	2791.5	5525.7	2814.9	2918.7	5733.6	6123.6
증가율%	1.4	-1.1	0.1	3.0	4.6	3.8	6.8
수입(억달러, BOP기준)	2622.8	2519.5	5142.3	2609.5	2686.0	5295.5	5763.7
증가율%	2.3	-4.5	-1.1	-0.5	6.6	3.0	8.8
서비스 및 기타수지*	26.2	21.9	48.0	17.4	-24.8	-7.4	-17.6
환율(원/달러, 평균)	1141.7	1112.2	1126.9	1100.4	1086.0	1093.2	1045.0
회사채수익률(3년, AA-)	4.2	3.4	3.8	3.0	3.3	3.2	3.9
실업률(%)	3.6	2.9	3.2	3.4	3.1	3.3	3.1
취업자증감(천명)	449.5	424.0	436.8	279.8	263.9	271.9	318.5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의 합

Ⅲ. 이슈 분석

주요 산업별 경기 점검 및 정책 과제

- 주요 수출 업종의 업황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철강, 조선, 전기전자(반도체, 통신, 가전 등으로 분류),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업종 등의 수출 부진 심각
 - (조선) 세계 조선산업 수주량 급감 후 미약한 발주량 증가가 예상되나 일부 선종에서는 엔저 현상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철강) 세계경제 침체, 엔저, 중국 철강생산능력 과잉 등에 의해 침체가 지속될 전망
 - (자동차) 2012년 3/4분기 최저점 기록 이후 감소세는 다소 둔화되는 양상이나 하반기에도 유사한 국내외 시장 환경으로 부진 지속 전망
 - (일반기계) 지난 해 하반기 이후 생산·출하·가동률 감소 추세이며 하반기 회복 역시 크지 않을 전망
 - (전기전자) 2013년 하반기 반도체 산업은 생산 및 수출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그 외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통신기기 및 가전부문에서는 생산 감소세의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석유화학)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중국경제 저성장 국면 진입에 따른 수요 부진이 장기화 되면서 석유화학산업 전망 흐림
- 글로벌 경기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엔저가 부정적인 영향을 준 주요인으로 분석됨
- 한·일 수출경합도는 자동차, 전기전자, 선박 등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컴퓨터제조업의 경합도는 최근 크게 증가
 - 경합도가 높다는 것은 한일간 경쟁관계가 높아 엔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음을 의미

- 수출함수 추정 결과, 수출은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정(+)의 유의한 값을 보였지만 엔저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방향 및 크기가 많은 차이를 보임
 - 글로벌 경기, 엔저에 모두 영향을 받는 업종: 철강, 반도체, 컴퓨터, 일반기계
 -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업종 : 석유화학, 가전, 자동차
 - 글로벌 경기, 엔저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 무선통신기기, 선박
 - 일반적으로 한·일 수출경합도가 높은 업종이 엔저 영향을 더 받지만 경합도가 높더라도 상대적으로 엔저의 영향이 낮은 업종도 존재

■ 외환시장 변동성 최소화 노력과 함께 비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할 필요

- 정부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기업 비가격 경쟁력 제고 노력을 유도해야 함
 -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한 사전적 대비를 통해 환율 변동성 확대를 예방
 - R&D 투자세액공제 확대, 적극적인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지원을 통한 우리 제품에 대한 고부가가치화 및 일본제품과의 차별화
 - 중소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일부 중소기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방안 모색
 - 선진국 및 신흥국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정부와 기업 공조체계 강화
- 엔저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의 기업들은 비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함
 - 신제품 개발, 특화제품의 차별화, 현지 마케팅 강화를 통한 브랜드가치 제고가 필요
 - 장기적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환율의 영향을 덜 받고 시장확대에 도움이 되는 수요지 근접 해외 생산기지의 확대가 필요
- 수출부진을 극복할 수 있는 산업·규모별 시장기능 활성화 방안 필요
 - 조선업의 경우 제작금융 규모 확대 및 금융기관 여신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제작금융 활용도 제고 필요
 - 유연한 인력활용이 절실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사용에 대한 직접적이고

- 획일적인 규제는 가급적 지양해야 함
- 중소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환율변동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홍보해야 함

제 I 장

최근 경제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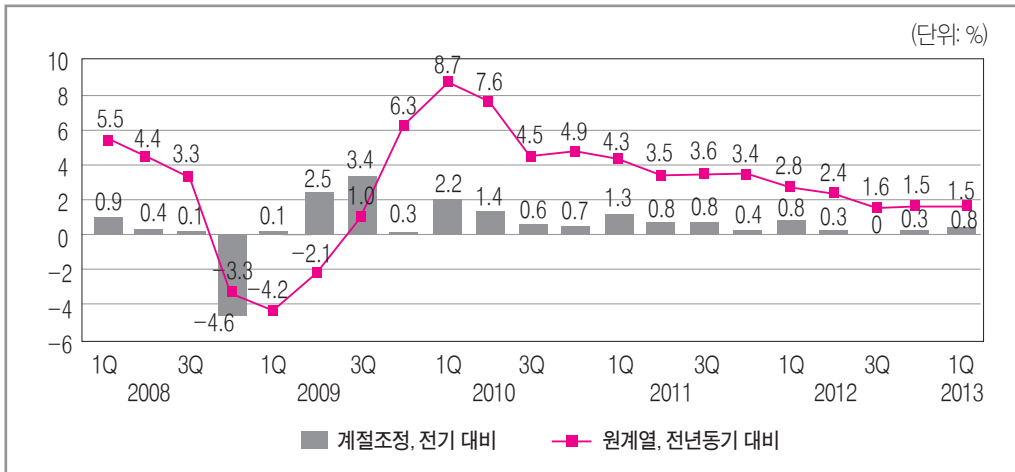
1. 경제성장
2. 수출입(통관기준) 및 경상수지
3. 물가
4. 고용 및 노동
5. 금리와 환율

1. 경제성장

■ 성장률, 2013년 1분기 전기 대비 0.8%에 그침

- 2011년 2분기 이후 8분기 연속 1%대 미만 기록
- 중기적으로 유럽위기 등에 따른 대내외 경기회복 지연에 기인
- 단기적으로는 연초 이후 미국 재정문제 관련 불안문제와 대내적으로 북핵문제 등이 성장 제약요인으로 작용
- 전년동기 대비 성장률은 전분기와 같은 1.5%에 그쳤으며 이는 2009년 3분기(1.0%) 이후 최저

〈그림 I-1〉 실질GDP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민간소비가 감소세로 전환. 건설투자는 증가세로 반등했으나 회복 지속성은 낮아 보임

- 설비투자, 전기 대비 2.6% 증가했으나 전년동기 대비(원계열 기준)로는 감소세 확

- 대 (전년동기 대비: -5.2%(2012, 4/4) → -11.9%(2013, 1/4))
- 글로벌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수출부진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고 신정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기업투자심리가 위축
- 민간소비, 전기 대비 0.4% 감소: 0.8%(2012, 4/4) → -0.4%(2013, 1/4)
 - 경기부진 장기화,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 부담 본격화 등이 소비위축 요인으로 작용
 - 건설투자, 전기 대비 4.1% 증가: -1.2%(2012, 4/4) → 4.1%(2013, 1/4)
 - 단, 지난 1년여 기간의 부진에 대한 반등효과일 가능성이 높으며 최근 건설수주 감소세 확대 등을 고려할 때 회복의 지속성은 낮음
 - 재화수출, 전기 대비 4.3% 증가: -1.2%(2012, 4/4) → 4.3%(2013, 1/4)
 - 전년동기대비로는 전분기(4.7%)보다 0.2%p 낮은 4.5%로 둔화

〈표 1-1〉 최종수요항목별 증가율

(단위: %,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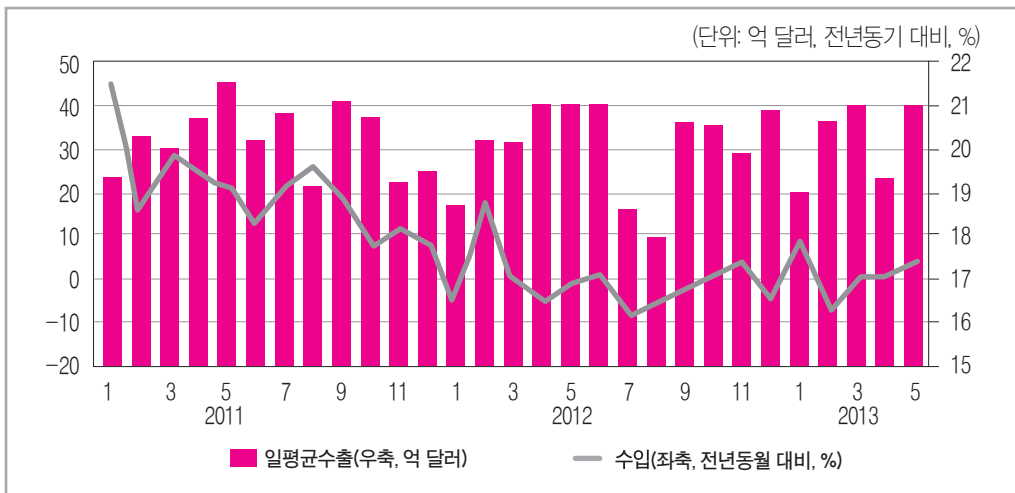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	민간소비	설비투자	건설투자	수출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계절조정계열, 전기대비)			
2011년1/4	3.2	10.5	-10.0	17.7	0.7	-2.0	-2.6	3.2
2/4	3.1	7.7	-4.7	10.6	0.6	4.0	1.7	1.3
3/4	2.1	1.1	-3.6	9.8	0.1	-1.8	-0.4	1.5
4/4	1.2	-3.6	-1.7	3.2	-0.2	-3.6	0.1	-2.7
2012년1/4	1.3	8.8	-0.4	4.7	0.8	10.4	-1.5	4.6
2/4	1.0	-3.5	-3.1	2.4	0.4	-7.8	-1.3	-0.9
3/4	1.7	-6.9	-0.3	3.2	0.7	-5.2	0.7	2.3
4/4	2.7	-5.2	-4.2	4.7	0.8	-1.8	-1.2	-1.2
2013년1/4	1.5	-11.9	2.4	4.5	-0.4	2.6	4.1	4.3

자료: 한국은행

2. 수출입(통관기준) 및 경상수지

- 수출, 1~5월 소폭 증가하였으나 상반기 전체로는 정체수준
 - 2013년 1~5월 0.9% 증가. 3월 이후 증가세로 반전. 일평균 수출액은 1~3월에 비해 4~5월에 소폭 감소
 - 수출증가율(전년동월 대비): 0.4%(2013. 1~4월) → 3.2%(2013. 5월)
 - 일평균 수출증가율: 5.0%(2013. 3월) → -8.1%(2013. 4월) → 1.0%(2013. 5월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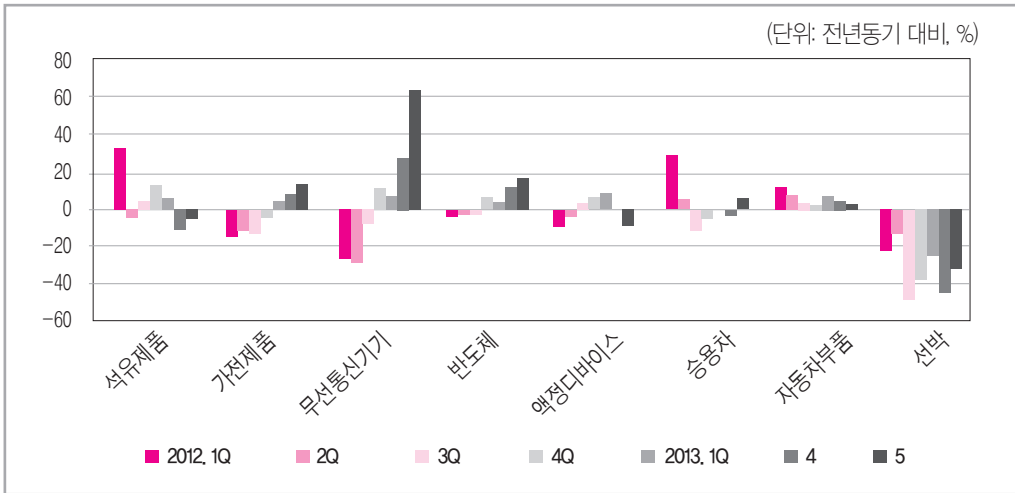
〈그림 1-2〉 수출증가율 및 일평균 수출



자료: 한국은행

- (품목별) 4월 이후 석유제품, 액정디바이스는 선박과 더불어 마이너스 증가율로 하락
 - 1~5월 무선통신기기, 반도체, 가전제품, 자동차 부품 등 수출주력품목에서는 플러스 증가율을 유지

〈그림 1-3〉 주요 품목별 수출증가율



자료: 관세청

- (지역별) 중국은 2013년 1~5월 줄곧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며 미국은 4월 이후 증가세로 반전, EU와 일본은 감소세 지속. 특히 엔저의 영향으로 일본은 4월 들어 -10% 이상 감소

〈그림 I-4〉 주요 지역별 수출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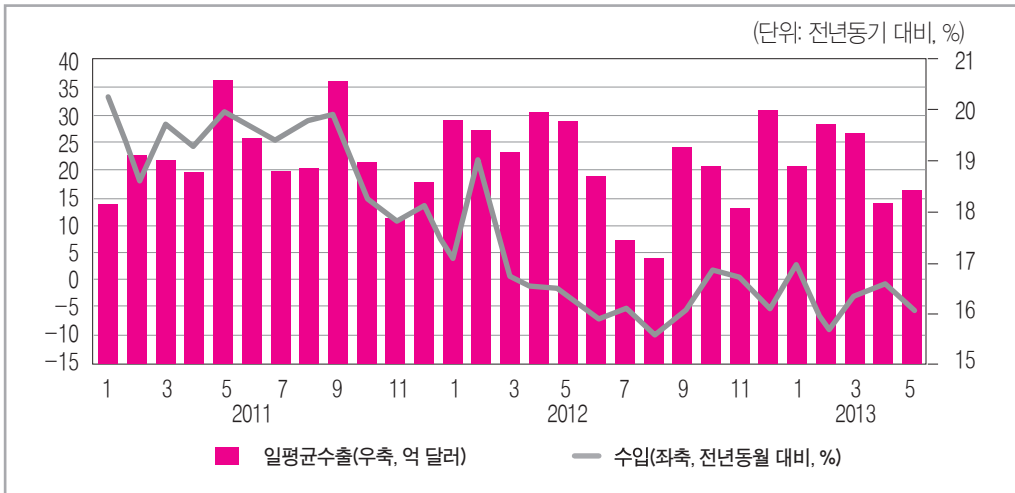
자료: 관세청

■ 수입, 2013년 1~5월 감소폭 지속적으로 확대

— 국내외 경기부진,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원유 및 철강 등 원자재와 해외중간재 수입 감소폭 지속적으로 확대

- 수입증가율(전년동월 대비): -2.9%(2013 1/4) → -0.3%(2013. 4월)
→ -4.8%(2013. 5월 잠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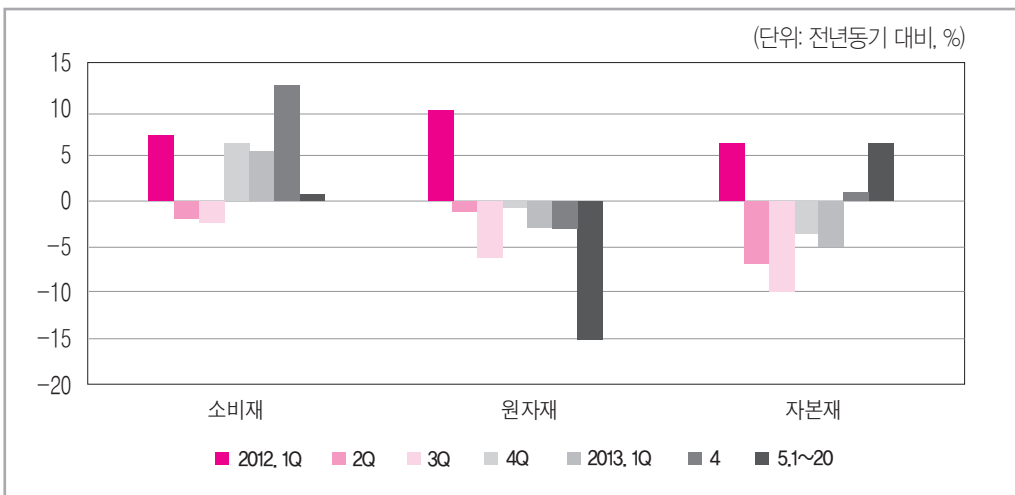
〈그림 1-5〉 수입증가율 및 일평균 수입



자료: 관세청

- 원자재 수입 감소폭은 1~5월 지속적으로 감소, 반면에 자본재 수입은 4월 이후 증가세로 반등, 소비재 수입 증가세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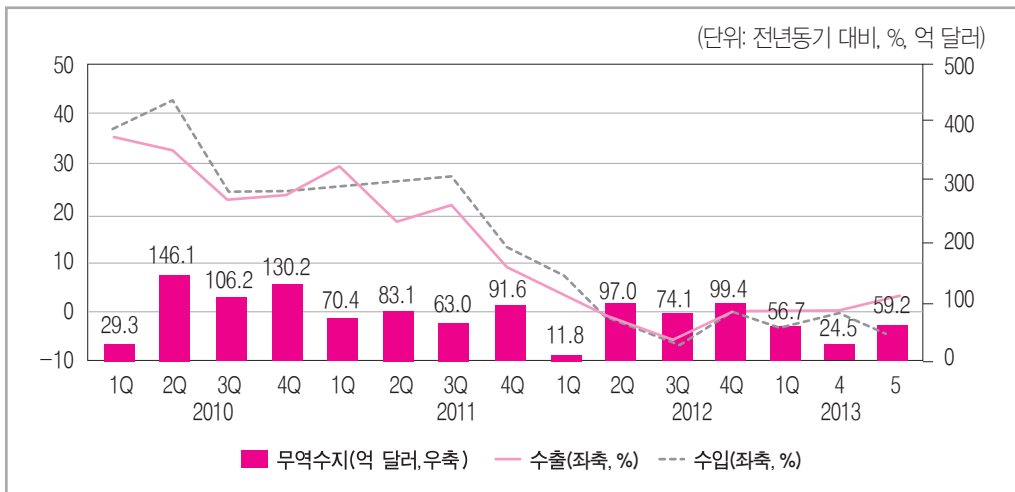
〈그림 1-6〉 용도별 수입증가율



자료: 관세청

- 무역수지, 2012년 2분기 이후 수입감소폭이 수출감소폭을 앞지르면서 불황형 무역수지 흑자 기록
- 2013년 1~5월 수출증가율은 플러스로 반등하였으나 수출증가폭은 수입감소폭보다 작음
 - 수출입증감률: 0.9%(2013. 1~5월 수출), -2.8%(2013. 1~5월 수입)
- 2013년 1~5월 무역수지 흑자폭은 전년동기 대비 확대
 - 무역수지(억 달러): 11.8(2012, 1/4) → 56.7(2013, 1/4) → 24.5(2013, 4월) → 59.2(2013, 5월)
 - 무역수지 증감액(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 83.3(2013, 1~5월)

〈그림 I -7〉 수출입 및 무역수지



자료: 지식경제부

- 경상수지, 2013년 1분기 경상수지 흑자 대폭 확대
- 2013년 경상수지 흑자는 큰 폭의 상품수지 흑자에 기인. 서비스수지 역시 적자규모

모가 전년동기 대비 소폭 감소

- 상품수지는 1/4분기 93.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년동기 대비 3배 이상 증가. 4월 35.9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상품수지 흑자규모 확대 추세
- 서비스수지 적자규모는 전년동기 대비 소폭 감소: -6.5억 달러(2012, 1/4)
→ -4.8억 달러(2013, 1/4)
- 특히, 사업서비스수지 적자규모 전년동기 대비 크게 감소: -46.2억 달러(2012, 1/4) → -30.2억 달러(2013, 1/4)
- 본원소득수지는 1분기 13.8억 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흑자폭 감소
- 이전소득수지는 1분기 -2.6억 달러로 전년동기 -8.9억 달러에 비해 적자규모 대폭 감소. 2013년 상반기 적자폭 지속적으로 감소할 전망

〈표 1-2〉 경상수지 추이

(단위: 억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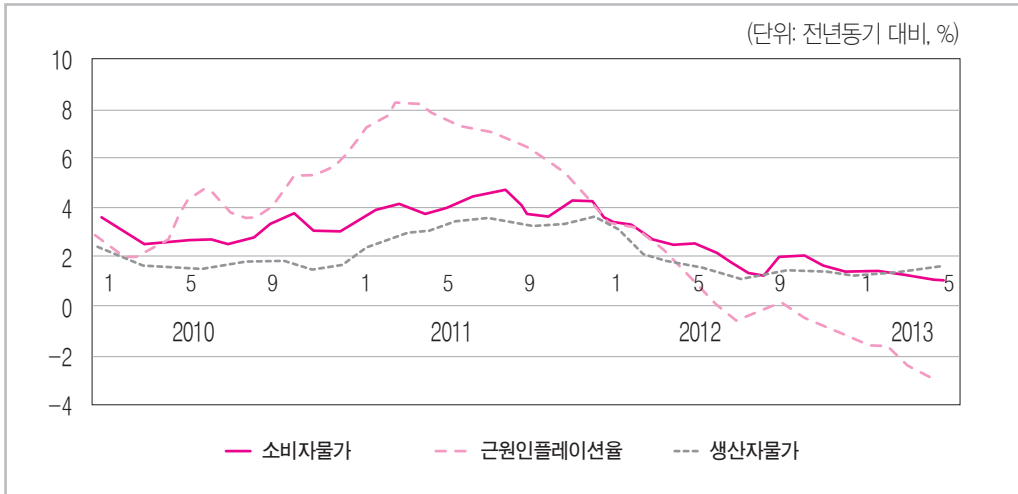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경상수지	260.7	25.6	111.9	145.6	148.3	431.4	100.2	39.7
상품수지	316.6	26.1	85.2	133.4	138.6	383.4	93.9	35.9
서비스수지	-58.5	-6.5	23.1	6.5	3.6	26.8	-4.8	14.5
운송수지	74.0	22.2	31.2	29.2	22.9	105.5	17.6	7.7
여행수지	-74.1	-16.4	-6.2	-19.1	-17.0	-58.7	-20.4	-4.5
통신서비스수지	-7.1	-2.1	-1.6	-1.8	-2.1	-7.5	-3.1	-0.5
건설서비스수지	116.8	43.2	42.5	40.5	41.3	167.5	40.7	11.8
보험서비스수지	-1.7	-0.7	-1.8	-0.3	-0.6	-3.3	2.5	-0.3
금융서비스수지	24.9	6.7	5.5	6.2	3.3	21.8	6.4	2.4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수지	-1.3	-0.6	0.2	0.5	-0.2	-0.2	0.3	0.4
지적재산권등사용료수지	-29.6	-13.0	-9.5	-13.6	-13.3	-49.5	-15.8	-0.9
유지보수서비스수지	2.0	0.7	-0.1	0.7	0.4	1.7	-0.1	0.0
사업서비스수지	-162.1	-46.2	-37.5	-36.9	-31.8	-152.5	-30.2	-1.4
개인, 문화, 오락 서비스수지	-0.9	0.0	0.4	0.0	0.5	0.9	-0.2	0.0
정부서비스수지	0.6	-0.3	0.0	1.2	0.2	1.1	0.4	-0.1
본원소득수지	28.9	14.9	8.2	10.4	15.4	48.9	13.8	-10.9
이전소득수지	-26.3	-8.9	-4.7	-4.8	-9.3	-27.6	-2.6	0.2

자료: 한국은행

3. 물가

- 소비자물가, 1%대 증가율 지속(2013년 1~5월 평균증가율 1.3%)
 - 5월 소비자물가 전년동월 대비 1.0% 증가율을 보이며 1월(1.5%) 이후 지속적 하락세
 -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 연속 1%대 증가율
 - 전월 대비: 0.6%(1월) → 0.3%(2월) → 0.2%(3월) → 0.1%(4월) → 0.0%(5월)
 - 상품물가가 크게 낮아진 데 기인
 - 농축수산물의 경우 3월 이후 출하가 증가하면서 안정세
 - 공업제품의 경우도 0%대로 거의 정체수준 지속
 - 수요부진,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등에 기인
 - 반면 서비스 물가는 집세 상승의 영향으로 비교적 높은 증가율
 - 근원물가도 여전히 1%대로 안정세 지속
 - 생산자물가, 마이너스 증가율 확대, 1~4월 중 -2.1%
 - 지난해 10월 이후 7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율 기록

〈그림 1-8〉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및 생산자물가



자료: 한국은행, 통계청

〈표 1-3〉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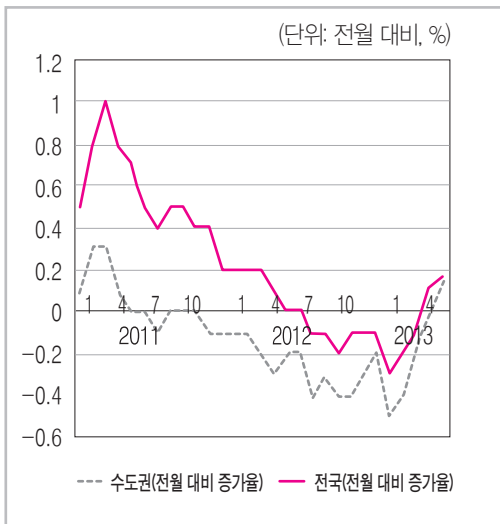
(단위: 전월 대비, %)

	기증치	2012년			2013년				
		10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총지수	1,000.0	-0.1	-0.4	0.2	0.6	0.3	1.3	1.2	1.0
상품	443.6	-0.5	-0.8	0.1	0.7	0.4	1.0	0.8	0.4
농축수산물	77.6	-2.5	-4.3	1.0	3.3	1.0	-0.6	0.3	-1.2
공업제품	317.7	-0.2	0.0	-0.1	0.1	0.3	0.8	0.2	-0.1
전기·수도·가스	48.3	0.0	0.0	0.0	0.9	0.0	6.1	5.9	5.9
서비스	556.4	0.2	0.0	0.2	0.4	0.3	1.5	1.5	1.4
집세	91.8	0.2	0.3	0.3	0.2	0.2	2.9	2.7	2.7
공공서비스	143.7	0.0	0.0	0.0	0.7	0.0	0.8	0.9	0.9
개인서비스	320.9	0.3	-0.1	0.3	0.4	0.5	1.4	1.3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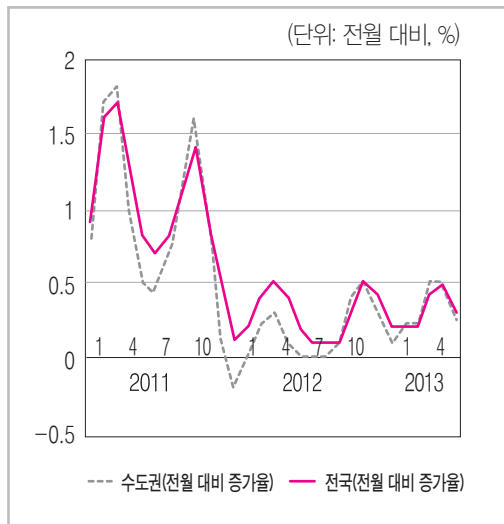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아파트 매매가격, 4월 이후 상승세 반전했으나 6월 들어 다시 약세
 - 아파트 매매가격, 4.1부동산 대책 이후 상승세로 반전했으나 최근 수도권은 다시 약세
 - 4, 5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던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6월 셋째 주 0.04% 하락하며 3주째 약세
 -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수도권과는 달리 아직 증가세
 - 아파트 전세가격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에 육박

〈그림 I -9〉 아파트매매가격



〈그림 I -10〉 아파트전세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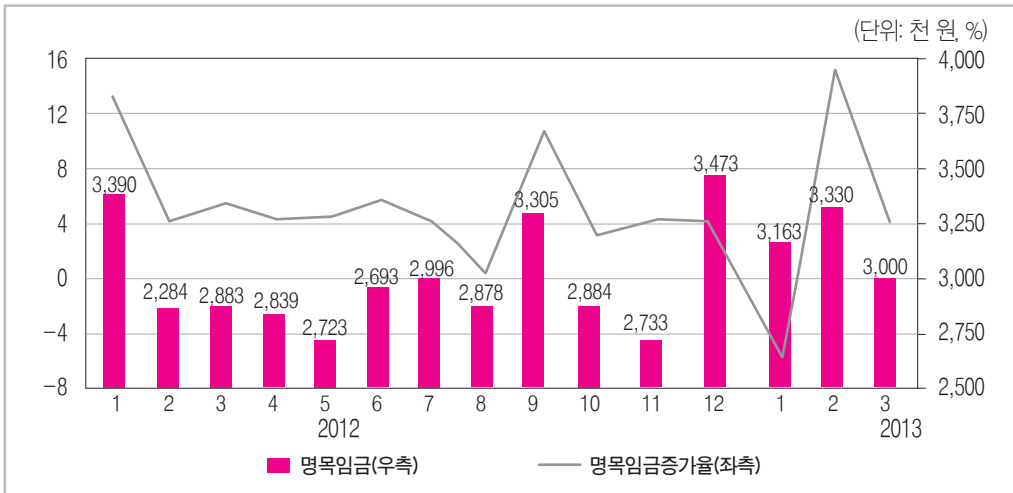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 명목임금, 1분기 중 증가세 둔화

- 1분기 동안 평균 약 4.3% 증가, 전년동기(약 7.8%)에 비해 둔화
 - 월평균 명목임금(천 원): 3,168(2013. 1월) → 3,330(2월) → 3,000(3월)
 -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 -6.6%(2013. 1월) → 15.5%(2월) → 4.1%(3월)

〈그림 I -11〉 명목임금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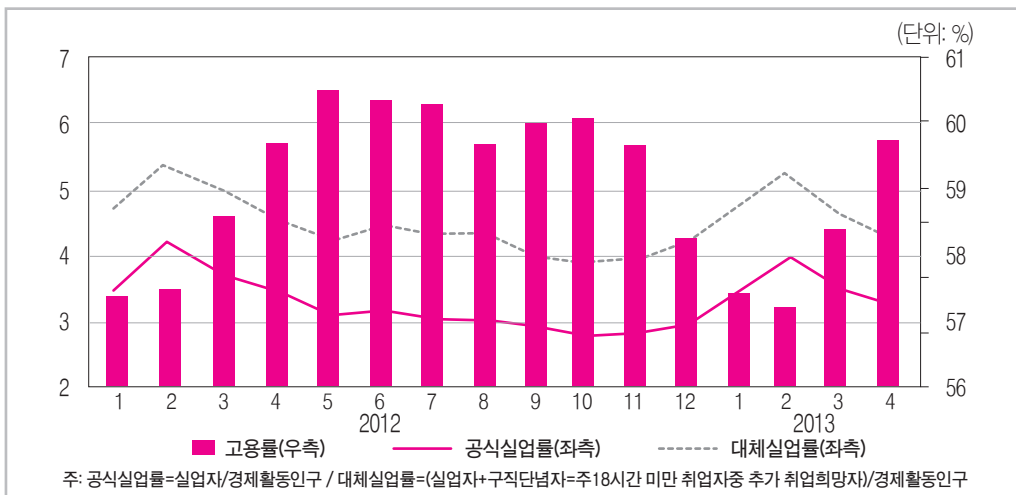
4. 고용 및 노동

■ 실업률, 1분기 중 감소세. 전년동월 대비 감소

- 공식실업률, 2월 이후 감소세. 전년동월 대비 감소폭 증가
 - 공식실업률(%): 3.4(1월) → 4.0(2월) → 3.5(3월) → 3.2(4월)
 - 공식실업률 증감(전년동월 대비, %p): -0.1(1월) → -0.2(2월) → -0.2(3월) → -0.3(4월)

- 대체실업률, 공식실업률과 1%p 격차 유지
 - 대체실업률(%): 4.7(1월) → 5.3(2월) → 4.6(3월) → 4.2(4월)
 - ※ 대체실업률: 체감 고용사정을 반영하는 실업률. 구직단념자와 주 18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취업희망자를 실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을 기존의 실업자에 더하여 계산
- 고용률, 1분기 중 증가세. 전년동월 수준 유지
- 고용률, 2월 이후 증가세
 - 고용률(%): 57.4(1월) → 57.2(2월) → 58.4(3월) → 59.8(4월)

〈그림 1-12〉 실업률 및 고용률(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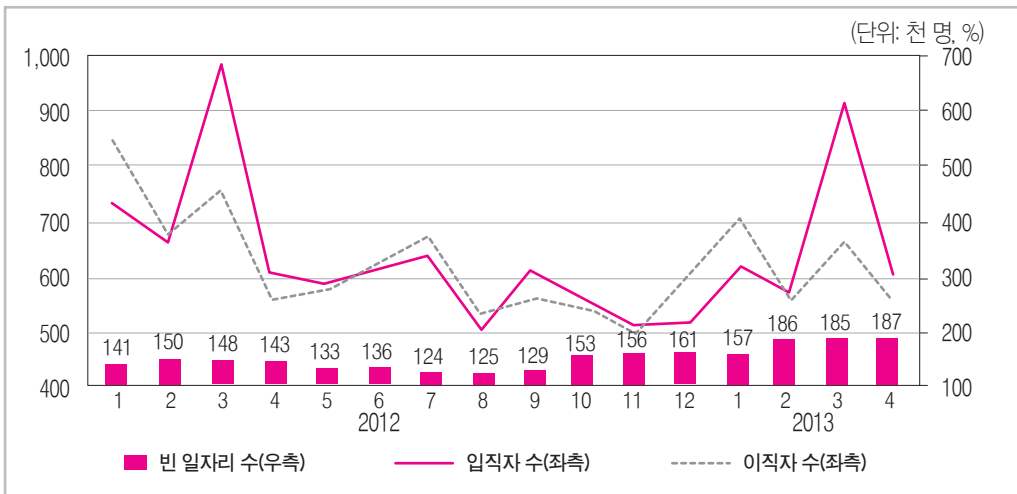
- 빈 일자리 수, 1분기 중 증가세. 전년동월 대비 증가
- 빈 일자리 수, 전년동월 대비 증가폭 상승
 - 빈 일자리 수 증감(전년동월 대비, 천 명): 16(1월) → 35(2월) → 37(3월) → 44(4월)

※ 빈 일자리: 현재 비어있거나 비어있지 않더라도, 구인활동을 하고 있으며, 한 달 이내 일이 시작될 수 있는 일자리

■ 순고용변동, 전년동기 대비 증가

- 순고용변동, 1분기 중 23만 1천명, 전년동기 대비 6만 8천명 증가
 - 입직자 수(천 명): 615(1월) → 570(2월) → 910(3월) → 598(4월)
 - 이직자 수(천 명): 701(1월) → 555(2월) → 661(3월) → 545(4월)
- ※ 순고용변동 = 입직자 수 - 이직자 수

〈그림 1-13〉 빈 일자리 및 입·이직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연령별) 청년취업자 감소세 심화, 고령취업자 증가세 확대

- 청년층 취업자 감소세가 작년 2분기 이후 더욱 심화
 - 15~29세 취업자 증감(천 명): -57(2012, 3/4) → -80(4/4) → -117(2013, 1/4) → -133(4월)

-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분기 중 8.4%, 4월중 8.4%
- 50세 이상의 취업자 수는 1분기 이후 증가세 확대
 - 50~59세(천 명): 273(2012, 3/4) → 220(4/4) → 196(2013, 1/4) → 264(4월)
 - 60세 이상(천 명): 245(2012, 3/4) → 215(4/4) → 181(2013, 1/4) → 180(4월)
- (산업별) 제조업의 고용 증가세 확대
 - 전기·운수·통신·금융은 4월중 고용 증가세에 돌입하였으며, 건설업은 4월중 고용 감소세가 둔화됨
 - 반면 농림어업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은 고용 감소세 심화,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은 고용 증가세 둔화

〈표 I -4〉 연령별 산업별 취업자 증감

(단위: 천 명, %)

		2012				2013	
		1/4	2/4	3/4	4/4	1/1	4월
계	취업자 증감	467	431	506	342	257	345
연령별	- 15 ~ 29세	1	-8	-57	-80	-117	-133
	- 30 ~ 39세	-65	-80	33	-10	-15	34
	- 40 ~ 49세	28	8	12	-3	12	1
	- 50 ~ 59세	326	260	273	220	196	264
	- 60세 이상	178	250	245	215	181	180
산업별	- 농림어업	-31	-24	2	-3	-9	-22
	- 제조업	-102	-66	85	140	119	165
	- 건설업	79	33	17	-40	-65	-9
	- 도소매·숙박·음식점업	100	140	114	61	-37	-67
	- 전기·운수·통신·금융	130	57	-11	-13	-12	88
	-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등	299	291	299	196	257	188
실업률 (%)		3.8	3.3	3.0	2.8	3.6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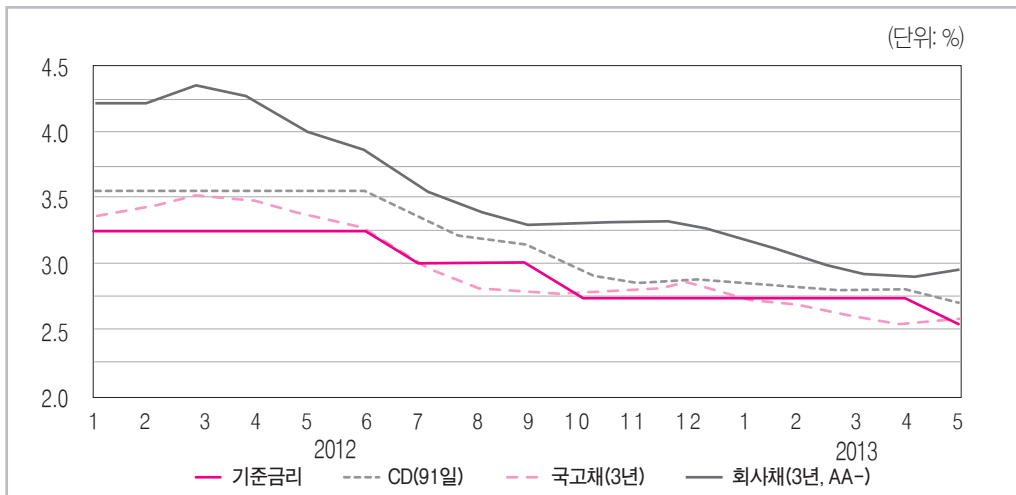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 금리와 환율

■ 기준금리 인하(5/9)에도 불구하고 장기금리 상승

-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0%로 인하(2013. 5/9)
 - 기준금리: 3.25%(2011. 6/11) → 3.00%(2012. 7/12) → 2.75%(10/11) → 2.50%(2013. 5/9)
-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단기금리는 하락했으나 장기금리는 추가 인하 기대 약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가시화 등의 영향으로 오히려 상승
 - 국고채(3년): 2.63%(2013. 2/28) → 2.49%(4/30) → 2.77%(6/18)
 - 회사채(3년, AA-): 2.99%(2013. 2/28) → 2.85%(4/30) → 3.13%(6/18)

〈그림 1-14〉 기준금리 및 시장금리



자료: 한국은행

- 2013년 상반기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화 가치가 약세를 나타냄
 - 4월 중순 이후 북핵리스크 완화 등으로 하락했던 원/달러 환율이 5월 들어 다시 상승
 - 원/달러 환율: 1,112.1원(2013. 3/29) → 1,108.1(4/30) → 1,128.3(5/31)
 - BOJ가 대규모 통화완화정책을 발표한(4/4) 이후 1,070원대까지 하락했던 원/100엔 환율은 최근 세계증시 약세에 따른 리스크 회피 측면에서 엔화 매수가 확대되며 1,190원대로 반등
 - 원/100엔 환율: 1,180.1원(2013. 3/29) → 1,132.0(4/30) → 1,116.6(5/31) → 1,197.1(6/17)
 - 엔/달러 환율은 4년만에 100엔을 돌파(5/9)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94.5엔(6/17)까지 하락

〈그림 I -15〉 원화환율



자료: 한국은행

제Ⅱ장

국내경제전망

1. 대외 여건
 - (1) 세계경제 성장
 - (2) 국제 원자재
 - (3) 주요국 환율
2. 2013년 국내경제전망

1. 대외 여건

(1) 세계경제 성장

- 신흥국의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미약한 경기회복으로 2013년 하반기 세계경제는 제한적인 회복세 시현 전망
- 2013년 1분기 미국과 일본은 회복세를 시현한 반면, 프랑스, 이탈리아 등 주요 유로존 국가들은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
- 2013년 세계경제 성장 전망치를 IMF(2013. 4월)는 3.3%로, OECD(2013. 5월)는 3.1%로 연초 전망치보다 낮게 조정
- 2013년 신흥개도국은 연초 예상보다 약 0.2%p 낮은 5.3~5.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선진국은 약 0.1%p 낮은 1.2%의 제한적 성장률 기록 전망

〈표 II-1〉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단위: %)

	실적치		2013.4월 현재 전망치		2013.1월 전망치와 비교(p%)		4/4분기 전망치 (전년동기 대비)		
	2011	2012	2013	2014	2013	2014	2012	2013	2014
세계	3.9	3.2	3.3	4.0	-0.2	0.0	2.7	3.6	4.0
선진국	1.6	1.3	1.2	2.2	-0.1	0.1	0.8	2.0	2.3
미국	1.8	2.3	1.9	3.0	-0.2	-0.1	1.7	2.2	3.4
영국	0.9	-0.2	0.7	1.5	-0.3	-0.3	0.3	1.1	1.5
유로존	1.4	-0.4	-0.3	1.1	-0.2	0.0	-0.9	0.6	1.1
- 독일	3.1	0.9	0.6	1.5	0.1	0.0	0.4	1.5	1.1
- 프랑스	1.7	0.2	-0.1	0.9	-0.4	0.0	-0.3	0.4	1.1
- 이탈리아	0.4	-2.1	-1.5	0.5	-0.4	0.0	-2.8	-0.4	0.6
- 스페인	0.4	-1.4	-1.6	0.7	-0.1	-0.1	-1.9	-0.7	1.1
일본	-0.6	2.0	1.6	1.4	0.4	0.7	0.4	3.8	-0.1
신흥개도국	6.3	5.1	5.3	5.7	-0.2	-0.1	5.2	5.7	5.9
중국	9.3	7.8	8.0	8.2	-0.1	-0.3	7.9	7.8	8.3
인도	7.9	4.5	5.7	6.2	-0.2	-0.1	4.1	5.8	6.2
브라질	2.7	1.0	3.0	4.0	-0.5	0.1	1.4	3.8	4.1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April 2013

- (유로지역) 2013년 상반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데 이어, 하반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기 어려울 전망
- 2013년 상반기 유로존은 재정건실화 정책, 수출 부진, 투자 및 소비 심리 약화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 추정
 - 최근 주변국(periphery countries)뿐만 아니라 핵심국(core countries)에서도 경기 부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바, 2013년 독일은 1% 미만, 프랑스는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 전망
 - 대부분의 주변국들, 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은 2013년 상당한 경기 위축 전망
- 재정 위기국에서 임금 등 생산비 감소를 통한 내적 절하(internal devaluation)가 점진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로 인한 수출증가가 내수 약화를 보완할 정도로 강하지 못한 상황
- 여전히 취약한 은행권, 신용경색, 투자 및 소비 위축 등이 상호 부정적인 피드백 작용(adverse feedback loop)을 하고 있는 상황

〈표 II-2〉 유로 지역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증가율, %)

	2011	2012	2013	2014
GDP	1.4	-0.6	-0.3	1.1
고용	0.1	-0.6	-1.0	-0.2
실업률 ¹⁾	10.0	11.2	12.1	12.3
노동생산성	1.1	0.0	0.3	1.3
가계 가처분소득	1.9	0.2	0.5	1.2
GDP 디플레이터	1.2	1.2	1.3	1.1

주: 1) 노동력 대비 비율

자료: 경제성장률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April 2013), 나머지 데이터는 OECD Economic Outlook(May 2013)

- (미국) 2013년 상반기 민간 소비 증가가 경제회복세를 견인하였으나, 2013년 하반기에는 시퀘스터 발동 효과와 출구전략이 경제회복에 부담을 줄 전망
 - 주택가격 및 주식가격 상승으로 인한 민간소비 증가가 사상 최악의 정부지출 자동삭감(시퀘스터) 충격으로 상쇄되어 2013년 미국경제 성장률은 1.9% 기록 전망
 - 2013년 3월부터 미국 연방정부의 예산 자동 삭감 조치(sequester)가 발동됨에 따라, 2013년 3월부터 9월까지 약 853억 달러의 예산(전체 연방예산의 2.4%)을 순차적으로 삭감해야 함
 - 지난 6월 19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은 금년 말부터 자산매입속도를 조절하여 내년 중반경에 자산매입조치를 중단한다는 출구전략 발표

〈표 II-3〉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증가율, %)

	2011	2012	2013	2014
GDP	1.8	2.2	1.9	3.0
고용	1.0	1.6	1.3	2.0
실업률 ¹⁾	8.9	8.1	7.5	7.0
노동생산성	0.8	0.6	0.5	0.8
실질 가계가처분 소득	1.3	1.5	0.5	3.8
GDP 디플레이터	2.1	1.8	1.5	1.9

주: 1) 노동력 대비 비율

자료: 경제성장률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April 2013), 나머지 데이터는 OECD Economic Outlook(May 2013)

- (일본) 2013년 상반기 아베 정권의 본격적인 양적 완화 조치와 재정확대 정책으로 인한 회복세가 하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나, 아베노믹스의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회복세는 약화될 전망
 - 일본 아베 정권은 과거 20년간에 걸친 저성장과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해 과감한 양적 완화 및 재정확대 정책, 그리고 성장 정책을 축으로 하는 아베노믹스를 적극 추진 중

〈표 II-4〉 아베노믹스 주요 내용

분야	주요내용
금융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플레이 2% 목표 달성 - 2014년까지 시중통화 공급량 현행 2배로 증대(138조엔 → 270조)
재정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 추경예산(13.1조엔)과 2013년 일반회계예산(72.6조엔)을 통해 추진
성장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 해외매출 확대 - 의료, 에너지 환경 등 국내 신성장 산업 발굴 - 3년 내 설비투자 규모 70조엔 확대 - 5년 내 FTA 교역 비중 70%로 확대 - 7년 내 농업 수출 규모 1조엔으로 확대

- IMF는 아베노믹스가 단기적으로 일본 경제성장률을 상승시킬 것으로 보고 2013년 성장률 전망치를 1월 전망치보다 0.4%p 높은 1.6%로 조정
- 환율 및 증시 등에서 효과를 거두던 아베노믹스는 최근 환율과 주가가 급등락을 보이며, 성공 가능성에 대한 회의론 대두
- 일본의 소비자물가지수(CPI)는 2013년 상반기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으며, 엔화가치 약세로 수출은 증가했지만 에너지 수입가격 상승으로 무역수지는 10개월 연속 적자 기록
- 아베노믹스가 실질적인 장기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구조조정 등 효과적인 성장전략이 뒷받침되어야 하나 지난 5월말 발표한 성장전략에는 근본적인 개혁 내용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

〈표 II-5〉 일본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증가율, %)

	2011	2012	2013	2014
GDP	-0.6	2.0	1.6	1.4
고용	-0.1	-0.3	0.2	-0.1
실업률 ¹⁾	4.6	4.3	4.2	4.1
가계 가처분소득	-0.3	0.3	1.1	2.5
GDP 디플레이터	-1.9	-0.9	-0.8	0.9

주: 1) 노동력 대비 비율

자료: 경제성장률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April 2013), 나머지 데이터는 OECD Economic Outlook(May 2013)

- (중국) 2013년 신 지도부 출범과 함께 수출 중심에서 내수 중심으로 경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어 예상보다 낮은 경제성장률 시현 전망
 - 2013년 1분기 중국 경제성장률은 7.7%에 그쳤으며, 세계 금융기관들은 중국의 2013년 성장률 전망치를 7.7~8.0%로 기존 전망치에 비해 0.1~0.3%p 하향 조정
 - 중국 경제는 제조업 수출 중심에서 서비스 내수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조정 중인 데, 서비스업의 생산효율성이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성장세 약화
 -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주요 수출 시장인 EU의 경기침체 장기화로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는 양상
 - 중국 지방정부 부채 증가와 금융권 밖에서 제공되는 그림자금융 규모 급증 등이 금융시장 불안 요인으로 상존하나, 중국이 경제 구조조정 과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할 경우 보다 안정적인 성장 기대

〈표 II-6〉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전망

(단위: 증가율, %)

	2011	2012	2013	2014
GDP	9.3	7.8	8.0	8.2
GDP 디플레이터	7.8	1.9	2.0	2.4
재정수지(GDP 대비 %)	0.1	-0.4	-1.4	-1.5
경상수지(GDP 대비 %)	1.9	2.4	2.3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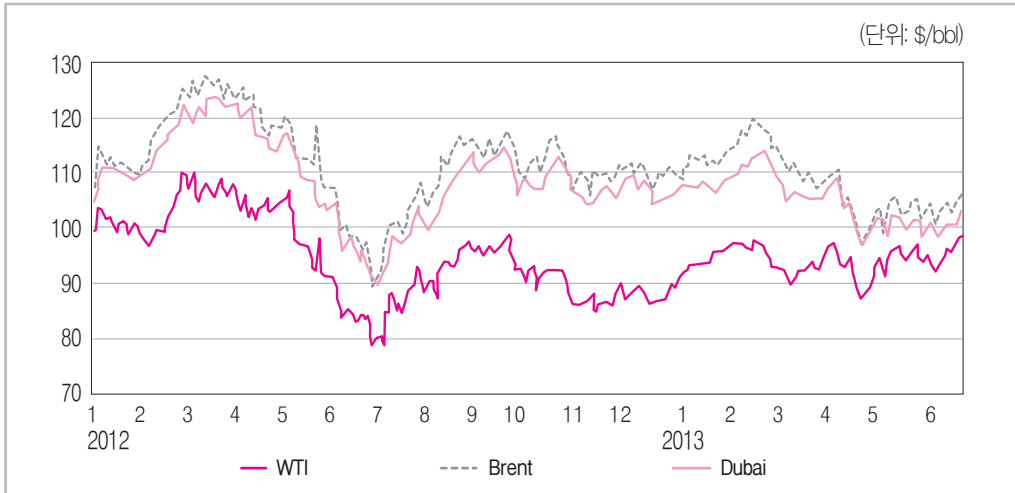
자료: 경제성장률은 IMF World Economic Outlook(April 2013), 나머지 데이터는 OECD Economic Outlook(May 2013)

(2) 국제 원자재

1) 국제유가

- 2013년 국제유가는 주요국 경제성장 둔화 및 달러 강세로 하락세를 유지하였지만, 5월 이후 주요국 경기부양책 지속 및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 소폭 반등 후 보합세 유지
 - 주요국 경제성장 둔화 지속으로 1분기 중반 이후 하향세 지속
 - IMF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3.5% → 3.3%)했으며 1분기 중국 성장률도 7.7%에 머물러 시장 예상치 8.0%보다 낮은 수준
 - 유로존의 4월 종합 구매관리자지수(PMI)도 46.5로 여전히 낮은 수준 유지
 - 중국 및 유럽의 석유수요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1~5월 원유생산 큰 폭 증가
 - 미국의 2013년 원유 1~5월 생산량은 716만 b/d로 전년동기 대비 14.7% 증가
 -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지속되며 유로화 대비 미 달러 가치 상승
 - 1.3641(1)/\$(2/1) → 1.2780(1)/\$(3/28)
 - 그러나 주요국 경기부양책 지속 및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요인으로 5월 이후 상승세로 반전
 - 미국 QE3 및 초저금리 지속(FOMC 5/1, 6/19) 속에 ECB는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0.5%로 인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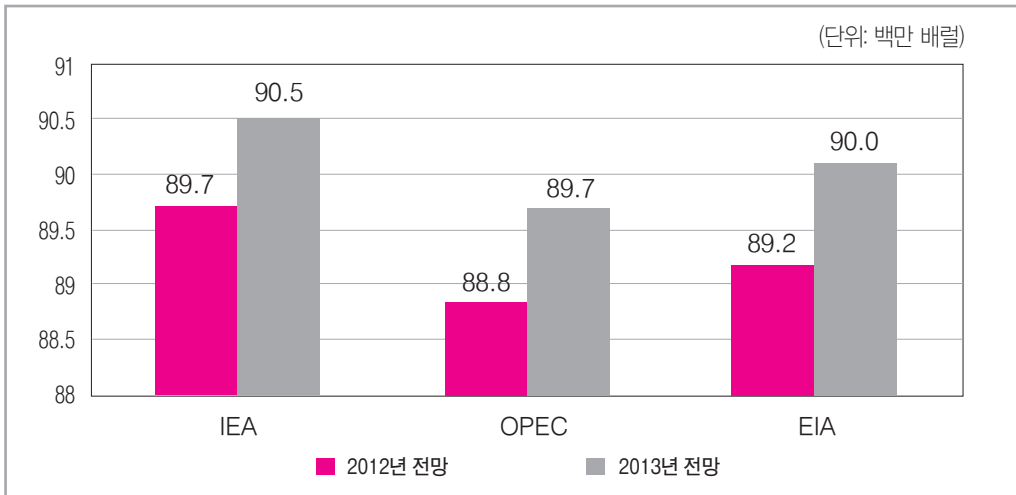
〈그림 II-1〉 국제유가 추이



자료: 한국석유공사(www.petronet.co.kr)

- (수요측면) 개도국 석유수요는 점진적인 개선을 나타낼 것이지만 선진국 경기회복 지연으로 전반적인 석유수요는 약세 유지 전망
- 세계경기 둔화세 지속 속에 2012년 대비 제한적 증가 예상
 - IMF는 2013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기존 3.5%에서 0.2%p 하향조정하였고 Credit Suisse 역시 0.1%p 하향조정(3.4%)
 - EIA는 2013년 세계 원유수요 전망을 전년 대비 87만 b/d 증가한 9,003만 b/d 로 전망
 - 그러나 최근 수요 전망치를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중: 9,022 b/d(2013. 01 전망) → 8,994 b/d(2013. 05 전망)

〈그림 11-2〉 2013년 세계 원유 수요 전망



자료: 한국석유공사(www.petronet.co.kr)

- (공급측면) 非OPEC 생산 증가가 예상되면서 2013년 원유 공급은 OPEC 생산의 소폭 하락에도 불구하고 세계수요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
 - 북미지역 원유생산의 지속적 증가로 非OPEC 국가 석유공급이 상당히 증가할 전망
 - EIA는 미국의 2013년 말과 2014년 원유생산 전망을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
 - EIA는 非OPEC 국가 석유생산이 2013년 120만 b/d, 2014년 160만 b/d 증가할 것으로 전망
 - EIA는 사우디아라비아 감산으로 인해 OPEC 생산량은 2013년 약 40만 b/d, 2014년 10만 b/d 감소할 것으로 전망

〈표 II-7〉 세계 석유 공급 전망

(단위: 백만 배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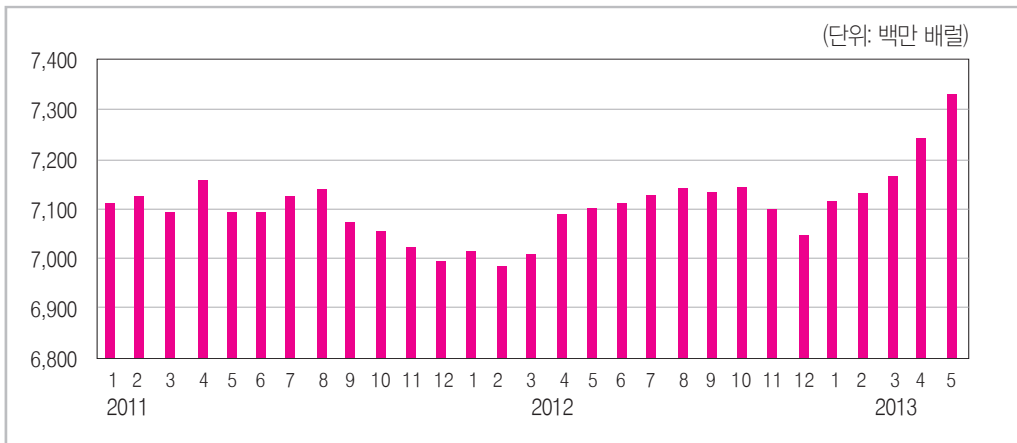
구분	2012년	2013년				
	평균	1/4	2/4	3/4	4/4	평균
수요	89.16	89.63	89.26	90.51	90.68	90.03
비OPEC 공급	52.72	52.96	53.71	54.19	54.77	53.91
OPEC NGLs	5.52	5.61	5.77	5.81	5.87	5.77
OPEC 공급(원유)*	30.89	29.99	30.45	30.55	29.86	30.21
공급	89.13	88.56	89.93	90.56	90.48	89.89
재고변동	0.03	1.07	-0.66	-0.047	0.19	0.14

주: *OPEC 12개국

자료: EIA 단기에너지시장전망(2013. 6월), 한국석유공사

- 또한 전 세계 석유재고도 2013년 1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수요증가로 인한 유가 상승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임

〈그림 II-3〉 세계 석유재고 추이



자료: 한국석유공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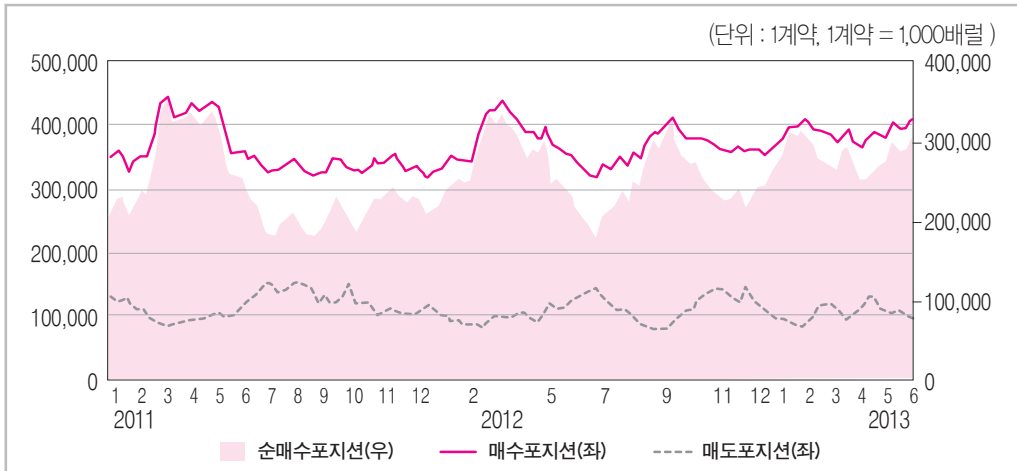
주: OECD, 비OECD 국가의 해상재고, 임시저장, 전략비축을 모두 포함

- (정치적 리스크) 이란 대선 이후 서방과의 핵협상 재개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란 리스크로 인한 유가 상승 가능성 축소
 - 6/14 실시된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중도파인 하산 로하니(Hassan Rouhani) 후보가 새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핵협상을 둘러싼 서방과의 갈등이 줄어들 가능성이 커짐
 - 이란은 10차례에 걸친 IAEA와의 핵사찰 협상이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지만 로하니 대통령 취임 이전이라도 재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
 - 그러나 여전히 시리아 내전 등 중동지역의 불안한 정세로 인해 제한적인 유가 상승 가능성은 상존

- (투기요인) 투기자금 유입으로 확대된 원유 선물시장의 순매수 포지션은 하락세를 보인 이후 다시 소폭 반등하고 있는 바, 작년과 유사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망
 - 세계경제 회복 기대감이 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여 순매수포지션은 2월 둘째 주 2013년 최고치에 도달하였으나 선진국 경기회복 지연으로 다시 하락
 - 2013년 최고치 314,346(2013. 2. 12.) 이후 251,493(2013. 4. 23.)까지 하락

 - 4월 말 이후 다시 반등세를 보이고 있으나 순매수 포지션은 지난해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전망
 - 307,134(2013. 6. 11.)까지 반등

〈그림 II-4〉 NYMEX-WTI 선물옵션 투기 포지션



자료: 미 상품선물 거래위원회

■ (유가전망) 해외 주요 기관들은 제한적인 유가 하락을 예상

- 해외 주요 기관들은 세계석유수요에 대한 전반적인 공급 초과를 예상하면서 올 주요 유가를 작년보다 낮춰 전망
 - 주요 선진국 경기회복 지연으로 장기침체의 우려가 다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을 포함한 개도국 성장세도 둔화되어 석유 수요 증가는 제한적일 전망
 - 非OPEC국 생산량 증가로 공급 상황은 개선
 - OPEC의 고유가 정책과 중동지역 불안정성으로 제한적인 유가 하락 전망

〈표 11-8〉 해외 주요기관 유가(기준유가) 전망

(단위: \$/bbl)

기관 (전망시기)	유종	2012년 평균	2013년				
			1Q	2Q	3Q	4Q	평균
CGES (5.20)	Brent	112.40	113.70	103.10	102.90	102.70	105.60
CERA (6.5)	Dubai	109.05	108.19	99.55	96.25	92.43	99.11
EIA (6.11)	WTI	94.12	94.34	93.18	92.33	93.17	93.25
PIRA (5.21)	WTI	94.15	94.30	95.40	104.00	107.15	100.20

주: CGES(런던소재 세계에너지센터), CERA(美 캠브리지 에너지 연구소), EIA(美 에너지정보청), PIRA(석유산업연구소)
 자료: 한국석유공사(www.petronet.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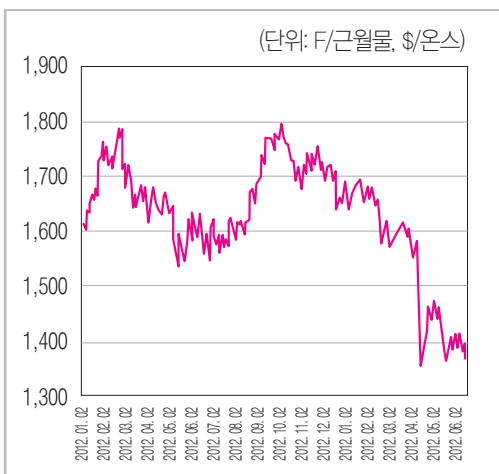
-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전반적인 수요 약세 속에 非OPEC 생산 증가로 인한 공급확대, 지정학적 리스크 및 투기수요 약화 등으로 인해 기준유가는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

2) 주요 원자재 및 농산물 가격

- (금) 6월 초 1,400달러 선을 회복하였으나 경기회복 부진, 투기자금 이탈 등으로 다시 하락세를 보이며, 금년은 약세로 마감할 전망
 - ETF를 포함한 금융상품과 현물 수요가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 가격 약세는 지속될 전망
 - 다만, 금 최대 소비국 인도의 실물수요가 유입되면서 큰 하락세를 보이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비철금속) 전반적인 생산초과 양상으로 하향안정세를 보일 전망이나 중국의 감산 등으로 일시적 상승세는 가능
 - 경기부진 지속으로 전반적인 생산초과가 예상됨

- 중국의 감산 및 재고 재비축, 인도네시아 구리광산 사고 등으로 하반기 가격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전반적인 생산초과 양상으로 인해 지속적인 가격 상승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농산물) 생산 및 재고 증대로 인해 상반기 국제 곡물가격은 콩과 옥수수를 중심으로 안정세 유지 전망
- 전 세계 곡물생산은 작년보다 약 8% 증가할 전망이나 소비는 4.8% 증가하는데 그칠 전망(美농무부 5월 보고서)
 - 재고 역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
 - 경작면적 확대 등으로 옥수수 및 소맥 생산량이 크게 늘어날 전망
- 중국의 곡물수입 확대로 인해 곡물가 추가하락은 제한적일 전망이며 기후여건 변동에 의한 가격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커질 전망
 - 중국의 대두 수입은 평균 3% 이상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고 옥수수 수입도 크게 증가
 - 기후변동이 단기 가격변동성을 좌우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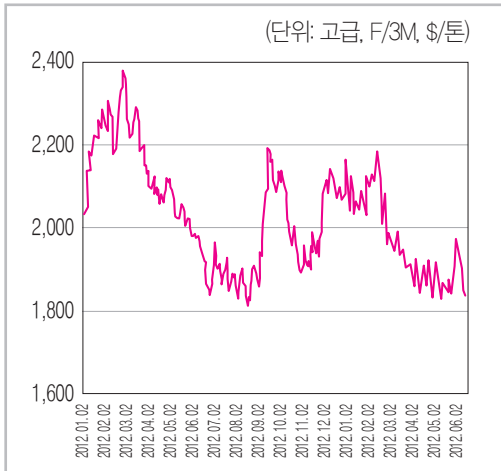
〈그림 II-5〉 금



〈그림 II-6〉 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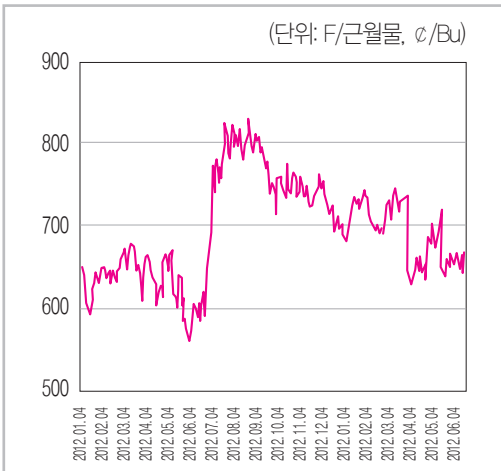
〈그림 11-7〉 알루미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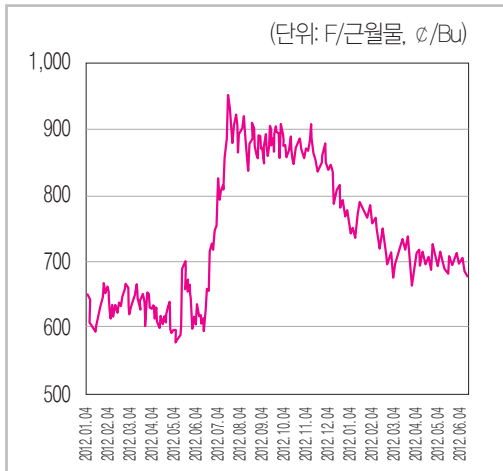
〈그림 11-8〉 니켈



〈그림 11-9〉 옥수수



〈그림 11-10〉 소맥



(3) 주요국 환율

- 주요국 경제성장이 불투명한 가운데 미국의 출구전략 및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어떻게

전개되는지에 따라 2013년 하반기 주요국 환율은 당분간 불안정하게 등락할 것

- (미달러) 하반기 미국 경제가 개선되고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면서 달러화 가치가 강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가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6월 19일 벤 버냉키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이 빠르면 올해 말부터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나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하반기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
 - 그러나 현재 미국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2분기 성장세가 둔화되는 등 미국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일본엔) 엔화 약세 추세는 유지될 것으로 보이나 아베노믹스가 의도한 방향대로 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엔화 가치 변동성이 확대됨
 - 일본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등 아베노믹스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는 데다 엔화 매수가 증대되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기도 함
 - 최근 일본 금융시장은 금리 급등과 주가 급락이 겹치며 크게 불안정하여 해외로부터의 자금 유입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향후 엔화 약세 속도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
- (유로) 유로존 경기 회복이 하반기에 불투명하게 전망됨에 따라 유로화 약세가 예상됨
 - 6월, 유럽 최대 강국인 독일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가 두 달 만에 최저치로 하락하는 등 하반기 유럽 경기는 부정적 전망
 - 최근 유로화가 예상 밖의 강세¹⁾를 보이며 남유럽 국가들의 수출 이익이 감소됨에 따라 경제회복 지연을 막기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이 개입할 가능성도 존재
 - 지난 6일 ECB가 금융통화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하면서 추가 부양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보인 점, 유로존 경제지표가 호전되고 있는 점은

1) 최근의 유로 강세에는 유로존 경기 모멘텀 회복 전망과 유로 캐리트레이드 약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 유로화 금리가 낮게 유지되면서 이를 차입하여 호주달러나 멕시코 채권 등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유로 캐리트레이드가 확대되어왔으나 최근 금리변동성 국면을 맞아 투자자들이 빠져나감.

유로화 가치 상승 요인

- 시장조사업체 마르키트의 잠정집계 결과 6월 유로존 복합 PMI는 48.9로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달성. 그러나 여전히 경기 확장을 의미하는 50을 하회하는 수준에 불과
- (중국위안) 위안화 환율의 변동성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강세 기조는 당분간 유지 될 것으로 전망
 - 다만 중국의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자금유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아 향후 위안화 강세 속도가 늦춰질 것으로 예상됨
 - 최근 핫머니가 유출되어 중국은행들의 자금수급이 차질을 빚으면서 중국 재무부의 국채발행이 목표에 미달하기도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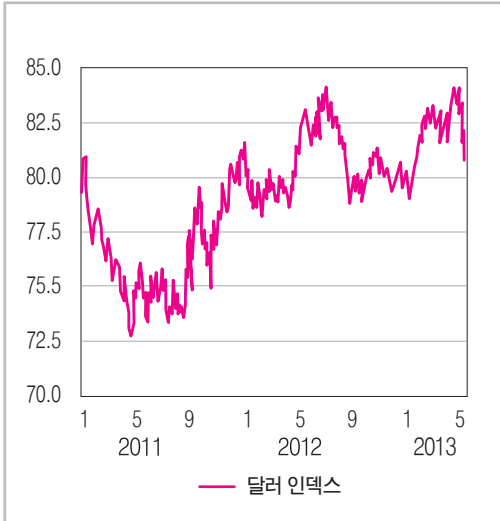
〈표 11-9〉 주요 투자은행들의 환율 전망

	3개월 후	6개월 후	9개월 후	12개월 후
엔/달러	103.07	105.17	105.78	108.08
달러/유로	1.29	1.27	1.26	1.28
위안/달러	6.14	6.12	6.10	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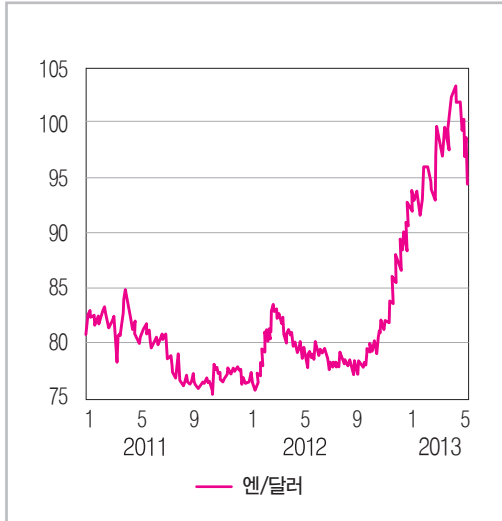
주: JP모건 외 13개 투자은행의 전망치 평균값, 전망시점은 06/03~06/24

자료: 국제금융센터

〈그림 II-11〉 달러 인덱스



〈그림 II-12〉엔/달러 환율



〈그림 II-13〉 달러/유로 환율



〈그림 II-14〉 위안/달러 환율



- 이상의 대외여건을 감안하여 전망의 주요 전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
 - 세계경제 성장률은 IMF의 4월 전망치를 이용하여 3.5%에서 3.3%로 0.2%p 하향 조정
 - 국제유가는 두바이유를 기준으로 기존 105달러/배럴에서 99달러/배럴로 약 6달러 하향 조정

〈표II-10〉 전망의 주요 전제 수정

	2013년	
	2013.3월 전망	2013.6월 전망
세계경제성장률	3.5%	3.3%
국제유가(두바이유 기준)	105달러/배럴	99달러/배럴

2. 2013년 국내경제전망

(1) 경제성장

- 성장률: 1.7%(상반기) → 2.9%(하반기), 연간 2.3%
 - 2013년 하반기, 추경 등 정부의 경기부양책에도 불구, 3% 미만의 낮은 성장률(전년동기 대비)에 그칠 것으로 전망
 - 대외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당초 예상대비 악화
 - 미국은 주택, 고용상황이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하반기 양적완화 출구전략 시행여부, 국가부채한도 협상과정에서의 여야갈등 등이 회복지속에 주요 변수이고 유럽은 하반기에도 경기침체가 이어질 전망
 - 중국은 새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으나 질적 성장 추진에 더 큰 중점을 두는 기조여서, 현재 7%대의 성장률을 무리하게 8% 이상으로 끌어

올리는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전망

- 일본은 아베노믹스가 여전히 실물경기 회복으로 연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국채금리 상승, 재정부담 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하반기 경기회복 여부 불확실한 상황
- IMF의 올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속적으로 하향조정 되면서 지난해 성장률(3.2%)에 근접: 3.9%(2012. 7) → 3.6%(2012. 10) → 3.5%(2013. 1) → 3.3%(2013. 4)

- 대외여건과 한국 수출과의 상관관계 약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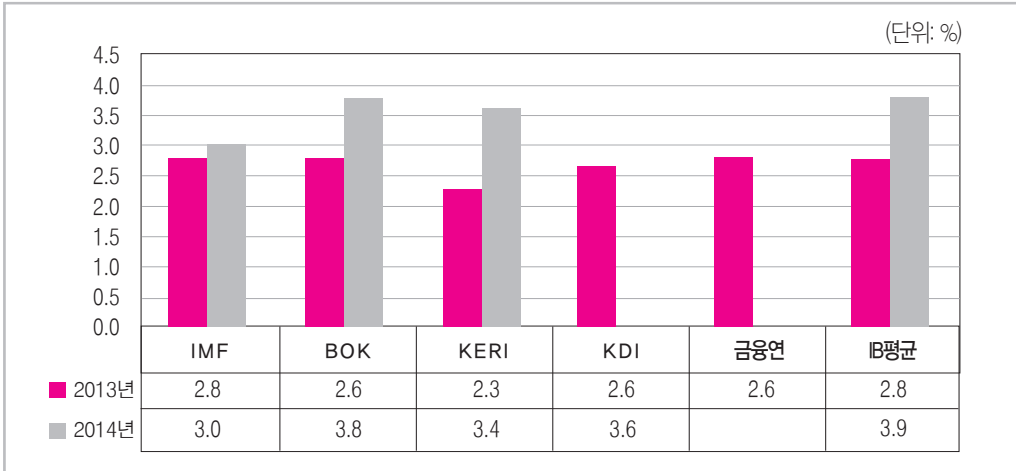
- 엔저에 원고가 겹치는 현상. 지난해 평균 달러당 약 80엔대였던 엔화가치가 약 100엔 전후로 하락. 품질경쟁력에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일본제품과의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
-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우리 기업을 겨냥한 무역구제조치들이 급증하고 있음. 지난해 삼성전자, LG전자의 세탁기·냉장고가 미국에서 반덤핑조치를 받았고, 올 초엔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가 중국에서 첫 담합제재를 받는 등 무역위축효과 초래될 우려

- 대내여건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운 상황

- 금번 추경의 순수 세출 확대규모는 약 7조 원 정도에 불과²⁾하고, 기준금리 인하의 파급효과도 제한되면서 경기부양정책의 효과는 기대보다는 미흡할 전망
- 또한 가계부채 디레버리징 조짐, 고용증가세의 둔화, 주택시장 조정과정(매매가 하락, 전세가 상승)의 지속 등으로 소비심리 회복 지연
- 과도한 경제민주화 조치 등에 따른 투자심리 불안으로 하반기 기업설비투자 회복여부 불투명

2) 금융연구원, “하반기 경제전망과 우리의 대응”(2013. 6), 추경규모, 재정승수, 집행속도 등을 고려해 추경 효과를 실질GDP 1,2조 원(0.11%p)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

〈그림 11-15〉 주요 기관 2013~2014년 한국경제전망



자료 : IB평균(Barclays, BNP, BOA, Citi, Deutsche Bank Goldman Sochs, Nomura, JP Morgan, Morgan Stanley, UBS의 전망치 평균)

■ 민간소비: 1.5%(상반기) → 2.0%(하반기), 연간 1.7%

– 하반기 민간소비는 상반기에 비해 소폭 개선에 그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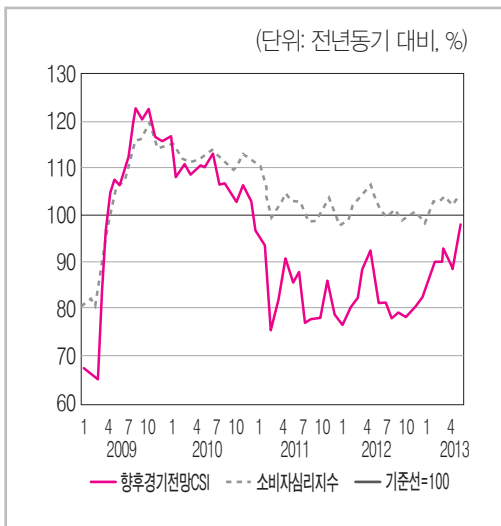
- 올 들어 소비자심리지수(CSI)는 다소 개선되는 모습
 - 하반기 원/달러 환율의 하락, 물가안정 등으로 구매력 개선 가능성
 - 새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 주요 기관들의 상저하고 전망도 소비심리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가계부채 조정, 부동산 가격 하락세, 고용의 질적 저하 등이 소비심리 회복을 제약하면서 가계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추세(소비위축)가 이어질 전망
 - 2013년 1분기 말 현재 약 961.6조 원의 가계부채(가계대출 908.1조 원, 판매신용 53.5조 원)에 대한 이자부담만 대략 연간 47.6조 원³⁾
 - 2012년 평균소비성향이 사상 최저치로 하락 이후 올 들어서도 가계부채 조정 과정이 지속되면서 구조적 소비위축의 가능성
 - 아직까지 비교적 양적으로는 양호한 고용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나 서비스업, 고

3) 2013년 4월 말 잔액기준 가계대출금리 연 4.95%를 적용

령층, 여성 등 저임금 부문을 중심으로 주도되면서 구매력 증가로 이어지기는 한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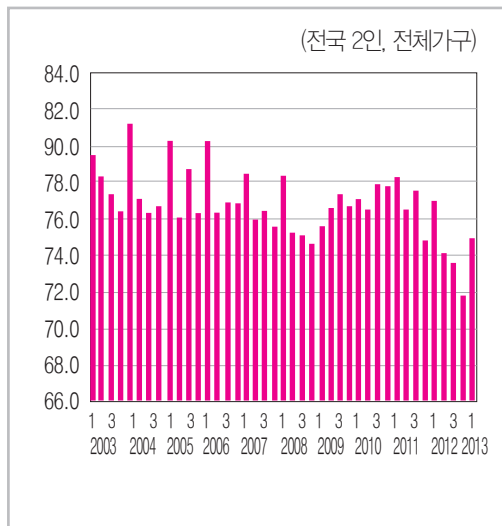
- 매매가격 하락, 전월세 가격 상승이라는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전망. 이에 따라 부동산경기는 역자산효과, 소비지출여력 감소 등을 통해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그림 11-16〉 소비심리지수(CSI)



자료: 통계청

〈그림 11-17〉 가계 평균소비성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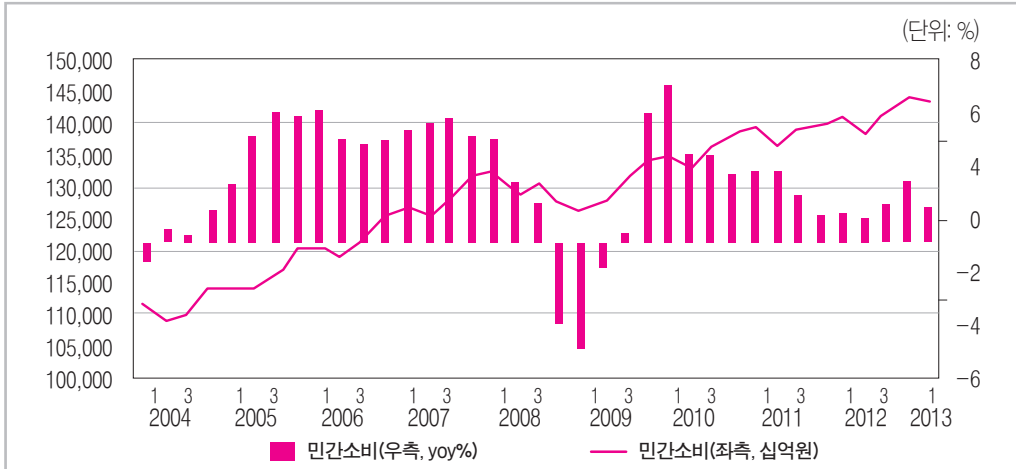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 이에 따라 하반기에도 민간소비증가율은 GDP증가율 상승폭에 미치지 못하는 추세가 지속될 전망

- 민간소비 증가율이 GDP증가율을 크게 하회하는 현상은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추세적으로 지속되어왔음.

- 민간소비 증가율: 4.8(2005~2007) → 2.8(2010~2012), $\nabla 2.0\%p$
- GDP증가율: 4.7(2005~2007) → 4.1(2010~2012), $\nabla 0.6\%p$

〈그림 II-18〉 2008~09년 전후 민간소비 금액 및 증가율 추이



자료: 한국은행

■ 설비투자: -7.8%(상반기) → 4.3%(하반기), 연간 -2.0%

- 하반기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마이너스 증가율을 벗어날 전망
 - 2011년, 2012년 연속 2년간 설비투자 부진이 이어졌고 또한 2012년 반기별로는 하반기 증가율이 -5.8%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올 하반기 성장률은 소위 ‘기저 효과’ 덕분에 플러스 증가율 반등⁴⁾ 예상
 - 원화강세 등에 따른 투자비용의 하락 등도 하반기 설비투자 증가율의 개선에 일 정부분 기여할 전망
- 하지만 예상보다 수출 경기회복세가 미약한 데다 경제민주화 등의 정책추진이 투자 회복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 설비투자는 수출회복이 최대 관건⁵⁾이지만 대외여건 개선 미흡, 수출환경 악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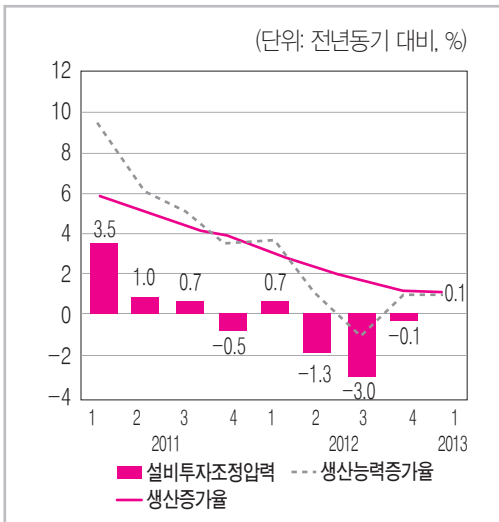
4) 2008년과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큰 폭으로 위축된 설비투자가 다음해인 2010년에는 25% 대로 급증

5) 2001~2012년 중 설비투자와 실질 재화수출과의 상관계수는 0.70로 매우 높은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음

등으로 수출증가세가 낮은 한자리 수에 그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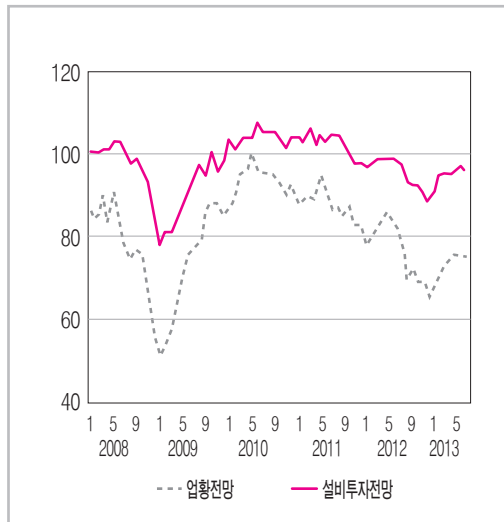
- 설비투자조정압력이 2013년 1분기 0.1%p로 낮은 상태⁶⁾이며 이는 향후 설비투자 회복세가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
 - 하반기 주요 경제민주화 추진에 따른 정책 리스크 증대 가능성
 - 배임 등 형사 처벌 강화에 따른 기업 투자결정 지연 가능성
 - 순환출자 해소에 투입되는 자금만큼 투자 및 경쟁력 강화에 부정적
 - 유통산업 규제에 따른 유통산업 경쟁력 저하

〈그림 II-19〉 설비투자압력



자료: 통계청

〈그림 II-20〉 BSI(업황 및 설비투자)



자료: 한국은행

6) 설비투자조정압력(%p)은 생산증가율(%)에서 생산능력증가율(%)을 뺀 값인데, 그 값이 클수록 설비투자조정압력이 높다는 의미. 설비투자조정압력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생산능력이 생산을 초과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당분간 설비투자 부진이 지속될 것임을 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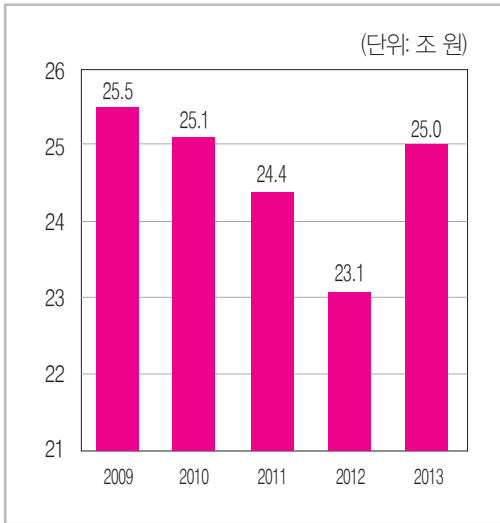
■ 건설투자: 2.8%(상반기) → 2.0%(하반기), 연간 2.3%

- 하반기에도 SOC예산 증가⁷⁾에 힘입어 공공건설은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민간건설은 수요부진 지속으로 회복흐름이 지연될 전망
 - 고령화·저출산, 주택 주수요층인 35~54세 인구 감소, 주택에 대한 소유개념 약화,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등이 중장기적 주택 수요 위축 요인으로 작용
 - 단기적으로 전세가 상승이 매매수요를 자극해 주택경기가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 제시되고 있지만 주택매매/임대시장의 구조가 과거와는 확연히 달라진 상태⁸⁾ 당분간 전세가/매매가 비율 상승이 주택경기 회복 근거의 의미를 갖기는 어렵다고 보임
 - 가계부채 조정과정에서 보유주택에 대한 매도압력이 증가함은 물론이고 주택구입을 위한 차입도 어려워질 전망
 - 공급측면에서도 중견 건설업체들의 잇따른 부도로 인한 건설업의 유동성 위기가 건설투자 회복에 부담요인으로 작용

7) 2010년 이후 3년 연속 감소를 지속하던 SOC예산이 2013년에는 전년대비 5.2% 증가한 24.3조 원으로 편성. 추경안에서는 0.7조 원 증액된 25.0조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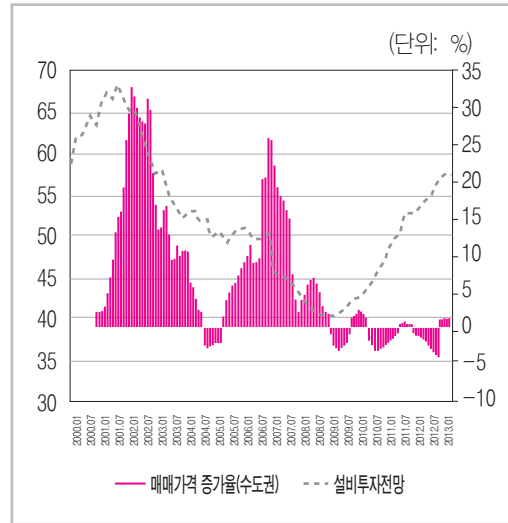
8)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약화된 상황에서 일물일가의 법칙(자가거주냐 임대거주냐에 관계없이 동일한 거주 서비스에 대해서 지불하는 가격은 같음)에 따라 전세가/매매가 비율이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그림 11-21〉 SOC 예산 추이



주: 2013년은 추경 금액
자료: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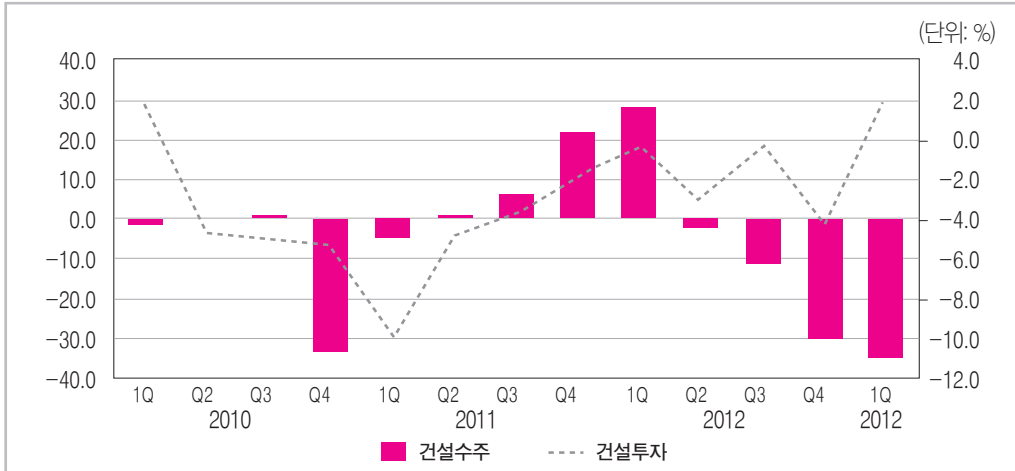
〈그림 11-22〉 수도권 전세가 비율



자료: 국민은행

- 하반기 건설투자는 상반기(2.8%로 추정) 보다 낮은 2.0%에 그칠 전망
 - 건설투자의 선행지표가 지난해 2분기 이후 1년여간 마이너스 상태이고 감소폭도 커지고 있어 향후 투자회복 상당한 시간 필요

〈그림 II-23〉 건설수주와 건설투자



자료: 통계청

(2) 수출입 및 경상수지

- 수출(명목, 달러)증가율: 3.0%(상반기) → 4.6%(하반기), 연간 3.8%
 - 글로벌 경기회복세 지연 등으로 하반기 수출증가폭은 낮은 수준에 그칠 전망
 -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예상되고 이것이 신흥국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
 - 일본정부의 경제구조개혁 능력이 의문시되면서 아베노믹스의 실패 가능성 제기. 이는 일본경제의 더딘 회복세를 초래할 전망
 - 독일과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한 유로존의 정치불안으로 유럽재정위기 해결이 지연될 가능성
- 수입(명목, 달러)증가율: -0.5%(상반기) → 6.6%(하반기), 연간 3.0%
 - 대내경기 회복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원자재 가격의 안정세가 예상되는 등 수입 증가세는 하반기 중 한자리 수에 그칠 전망

- 하반기 국내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회복세가 미약해 자본재와 원자재 수입 증가가 제한적일 전망
 - 국제원자재 가격의 안정은 수입금액 자체의 하락으로 이어짐
- 경상수지(억 달러) 흑자: 222.8(상반기) → 207.9(하반기), 연간 430.7
- 하반기 중에도 상반기와 유사한 규모의 흑자 지속 전망
 - 수출증가폭은 크지 않지만 수입증가폭도 제한적이어서 하반기에는 높은 수준의 상품수지 흑자 지속
 - 서비스 수지는 주요국 경기회복 지연, 엔저 등의 영향을 받으면서 흑자폭 줄어들어 적자를 보일 전망

(3) 물가

- 소비자물가: 1.3%(상반기) → 2.4%(하반기), 연간 1.8%
- 연초 공공요금 인상, 전세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상반기에 비해서 하반기 물가 상승률이 소폭 높아질 전망
 - 그동안 물가안정 차원에서 억제되어왔던 공공요금은 지속적인 인상이 불가피하고 작년 말 밀가루, 간장, 두부 등 국내 식품 업계도 제품가격을 인상
 - 이미 연간 상승률만큼 전세가격도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보임
 - 한편, 2012년에 시행된 보육비 지원, 5세 이하 아동 누리과정 지원, 무상급식 본격화 등에 따른 물가지수 하락 효과는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의 속성상 2013년 2월 이후 소멸

〈표 II-11〉 연초 이후 주요 공공요금 인상내용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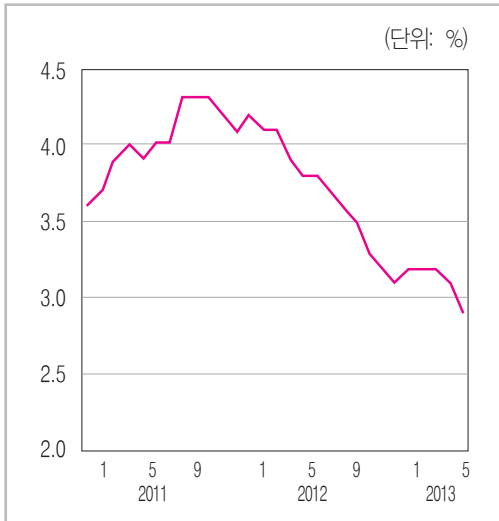
품목	인상률	시기
전기	4.0%	2013.1월
도시가스	4.4%	2013.2월
광역상수도	4.9%	2013.1월
시외버스 / 고속버스	7.7% / 4.3%	2013.3월
택시 (부산·울산 등)	기본요금 2,200원 → 2,800원	2013.1월

- 하지만 기대인플레이션⁹⁾이 낮아지고 디플레이션¹⁰⁾ 등 수요압력이 낮은 상황이어서 공공요금, 식품가격 인상이 미치는 파급효과는 제한
 - 2011년 4%대로 높아졌던 기대인플레이션은 2012년 하반기 이후 낮아지면서 올 5월에는 2%대로 하락
 - 하반기 성장률이 다소 높아지더라도 잠재성장률 수준(3.5~4.0%)에는 미치지 못해 디플레이션 상황은 지속될 전망
- 수요측 압력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원자재 하향안정, 원/달러 환율 하락 등 비용측면에서도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은 편
- 이에 따라 하반기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약 2.4%에 그치고 연간으로는 1%대 후반이 예상됨

9) 한국은행이 경제주체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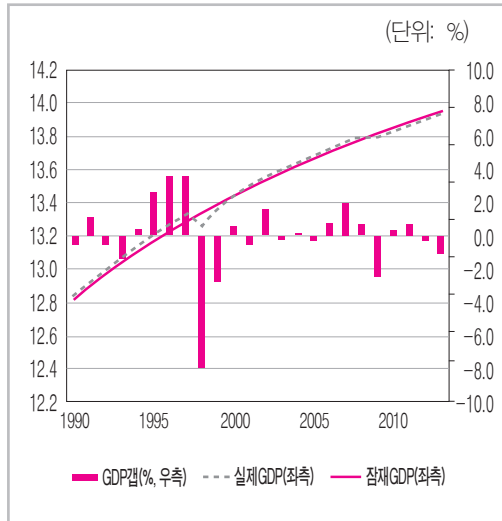
10) (실제성장률-잠재성장률)로서 수요가 생산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정도를 말함

〈그림 II-24〉 기대인플레이



자료: 한국은행

〈그림 II-25〉 GDP갭



자료: 한국은행

(4) 고용 및 노동

■ 실업률, 3.4%(상반기) → 3.1%(하반기), 연간 3.3%

- 하반기 경기회복 지연이 예상되면서 실업률도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울 전망
 - 상반기 대비 0.3%p 감소 전망은 실업률의 계절적 특성(1/4분기에 정점)에 기인함
- 상반기 빈 일자리 수가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하반기 실업률은 전년동기 대비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 빈 일자리 수는 일반적으로 실업률과 음의 관계를 보임. 빈 일자리 수가 많을수록 실업자들이 일자리를 구하기 더 수월
- 반면, 경기침체 국면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하반기 실업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장기간 경기침체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실업자로 노동시장에 유입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반면, 실업자에서 비경제활동인구로 노동시장에서 이탈할 가능성을 감

소시킴

- 취업자증감, 28.0만 명(상반기) → 26.4만 명(하반기), 연간 27.2만 명
- 하반기 경기회복 지연이 예측되는 가운데 경기순응적 패턴을 보이는 취업자 수 증가폭은 상반기에 비해 다소 위축될 전망
- 고용률의 계절적 특성상 연중 2/4분기에 취업자 수 증가폭이 다소 확대, 이후 증가폭이 축소될 전망
 - 취업자증감예측치(전년동기 대비): 30.3만 명(2/4) → 27.7만 명(3/4) → 25.1만 명(4/4)

(5) 시장금리 및 원/달러 환율

- 회사채수익률(3년, AA-) : 3.0%(상반기) → 3.3%(하반기), 연간 3.2%
- 2013년 하반기 시장금리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하반기 동안 기준금리가 현 수준에서 동결될 것으로 예상
 -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외국인 자본 유출이 가속화 될 것이며 이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대출금리 인상 등 국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
 - 미국의 양적완화 조기 종료 가능성 등 선진국의 출구전략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글로벌 자산시장 하방 압력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하반기 채권금리가 상승(채권 가격 하락)할 것으로 보임
- 원/달러 환율: 1,100.4원(상반기) → 1,086.0원(하반기), 연간 1,093.2원
-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조기 축소 논란으로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며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으나 하반기에 안정을 되찾으며 원/달러 환율이 1,086원으로 나타날 전망
 - 하반기 국내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며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원화의 절상 압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하지만 단기간에 원/달러 환율이 크게 하락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
- 엔화 약세에 따라 국내 금융시장의 외국인 자금 이탈과 국내 수출 부진 우려가 있으나, 엔/달러 환율이 안정된다면 외국 투자자들의 경제심리가 개선돼 국내 유입 외국 자본이 증가할 가능성도 있음
- 대내적으로 외환당국의 경제심리에 따른 환율 정책 등이 환율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표 II-12〉 2013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 대비(%), 억 달러(국제수지부문))

	2012년			2013년			2014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GDP	2.6	1.5	2.0	1.7	2.9	2.3	3.4
(SA, 전기비%)	1.2	0.3		1.4	1.5		
민간소비	1.2	2.2	1.7	1.5	2.0	1.7	2.5
건설투자	-1.9	-2.4	-2.2	2.8	2.0	2.3	2.4
설비투자	2.3	-6.1	-1.9	-7.8	4.3	-2.0	5.6
소비자물가	2.7	1.7	2.2	1.3	2.4	1.8	2.7
경상수지(억 달러)	137.5	293.9	431.4	222.8	207.9	430.7	342.3
상품수지(억 달러)	111.3	272.0	383.4	205.4	232.7	438.1	359.9
수출(억 달러, BOP기준)	2,734.1	2,791.5	5,525.7	2,814.9	2,918.7	5,733.6	6,123.6
증가율%	1.4	-1.1	0.1	3.0	4.6	3.8	6.8
수입(억 달러, BOP기준)	2,622.8	2,519.5	5,142.3	2,609.5	2,686.0	5,295.5	5,763.7
증가율%	2.3	-4.5	-1.1	-0.5	6.6	3.0	8.8
서비스 및 기타수지*	26.2	21.9	48.0	17.4	-24.8	-7.4	-17.6
환율(원/달러, 평균)	1,141.7	1,112.2	1,126.9	1,100.4	1,086.0	1,093.2	1,045.0
회사채수익률(3년, AA-)	4.2	3.4	3.8	3.0	3.3	3.2	3.9
실업률(%)	3.6	2.9	3.2	3.4	3.1	3.3	3.1
취업자증감(천 명)	449.5	424.0	436.8	279.8	263.9	271.9	318.5

* 서비스수지, 본원소득수지, 이전소득수지의 합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제Ⅲ장

이슈분석

주요 산업별 경기 점검 및 정책 과제

1. 검토 배경

- 주요 수출 업종의 업황 악화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수출출하지수¹⁾ 증가율을 기준으로 볼 때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의 경우, 2011년 7월~2012년 6월에 비해 2012년 7월~2013년 4월중²⁾의 수출출하증가율이 무려 23.6%p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선박이 포함된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은 최근 증가율이 개선되기는 했지만 양 기간 모두 3% 미만의 낮은 증가율을 지속

〈표 Ⅲ-1〉 주요업종의 수출증가율 하락

(단위: %, %p)

중분류 기준 산업	2011.07 ~ 2012.06	2012.07 ~ 2013.04	차이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5.3	-8.4	-23.6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0	-6.7	-18.6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3.1	-5.5	-18.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2.0	-3.1	-15.1
1차 금속 제조업	8.8	-1.2	-10.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3.1	1.2	-1.9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7	2.6	1.9

- 이에 보고는 최근 수출증가율이 빠르게 둔화된 업종을 중심으로 현황, 원인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수출규모를 기준으로 철강, 조선, 전기전자(반도체, 통신, 가전 등으로 분류), 자동차, 석유화학, 기계업종 등을 중심으로 살펴봄

11) 생산지수와는 달리 수출출하지수의 경우 소분류가 제공되지 않아 중분류로 분석

12) 엔저가 가속화 지난 7월을 기점으로 이전 1년(2011년 7월~2012년 6월)과 이후 기간(2012년 7월~2013년 4월)의 수출출하증가율의 차이를 계산

- 이들 업종은 2013년 5월 기준 우리나라 수출의 69.9%를 차지

2. 산업별 현황 및 전망

(1) 조선

1) 현황

- 경기침체 지속으로 세계 조선산업 수주량은 급감하였으나 금년 초 다시 호조세를 보이기 시작하고 일본의 수주량은 크게 증가
 -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공급과잉으로 우리나라의 수주량은 약세 지속
 - 2007년 3,240만 CGT 이후 2009년 430만 CGT까지 감소하였다가 2011년 1,400만 CGT까지 회복
 - 2012년 수주량은 다시 760만 CGT에 불과해 전년 대비 45.7% 감소
 - 2013년 1분기 전 세계 수주량은 전년동기 대비 77.3% 증가한 660만 CGT로 호조세를 보였으나 여전히 2010~2011 동기 대비 낮은 수준
 - 우리나라 수주량은 260만 CGT으로 세계시장 점유율 39.4% 유지
 - 중국의 추격과 일본의 수주량 급증이 주요 특징
 - 2013년 1분기 중국 수주 점유율은 37.9%로 우리와 1.5%p 차이에 불과
 - 2013년 1분기 일본 수주량은 90만 CGT로 전년동기 대비 800% 증가
 - 수주량 점유율도 2012년 1분기 2.6%에서 2013년 1분기 13.6%로 증가

〈표 Ⅲ-2〉 주요국 조선 산업 주요지표 비교

(단위: 백만 CGT, 점유율, %)

구분	수주량		건조량		수주잔량	
	2012. 1~3월	2013. 1~3월	2012. 1~3월	2013. 1~3월	2012. 1~3월	2013. 1~3월
한국	1.9(50.0%)	2.6(39.4%)	4.2(36.2%)	3.5(36.5%)	34.6(31.6%)	27.9(30.8%)
중국	1.1(29.0%)	2.5(37.9%)	4.2(36.2%)	3.1(32.3%)	41.4(37.7%)	32.8(36.2%)
일본	0.1(2.6%)	0.9(13.6%)	2.1(18.1%)	1.9(19.8%)	16.4(14.9%)	14.7(16.3%)
유럽	0.3(7.9%)	0.2(3.0%)	0.5(4.3%)	0.5(5.2%)	6.7(6.1%)	5.5(6.1%)
기타	0.4(10.5%)	0.4(6.1%)	0.6(5.2%)	0.6(6.2%)	10.6(9.7%)	9.6(10.6%)
총계	3.8(100%)	6.6(100%)	11.6(100%)	9.6(100%)	109.7(100%)	90.5(100%)

자료: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 수주량 증가에도 불구하고 선가지수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건조량 역시 낮은 수준 유지
 - 전년동기 대비 선가는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주력 수출 선종의 수주량 위축으로 수주금액은 크게 감소
 - 2013년 1분기 우리나라 주력 선종인 해양플랜트, LNG선, 드릴십 등의 전 세계 발주량이 낮은 수준 유지
 - 2013년 3월 Clarkson 선가지수는 125.3에 불과해 2007년 최고치인 185.1 대비 32.3% 하락한 수준
 - 낮은 가격으로 인해 2013년 1분기 수주액은 전년동기 대비 31.8% 감소한 56.8억 달러
 - 장기적인 수주량 감소추세가 반영되어 건조량 및 수주잔량 크게 감소
 - 2013년 1분기 국내조선소 건조량은 전년동기 대비 24.7% 감소한 349만 CGT 기록
 - 2013년 3월 말 국내 수주잔량은 2,815만 CGT로 전년 동월말 대비 21.5% 감소

〈표 III-3〉 조선 부문 주요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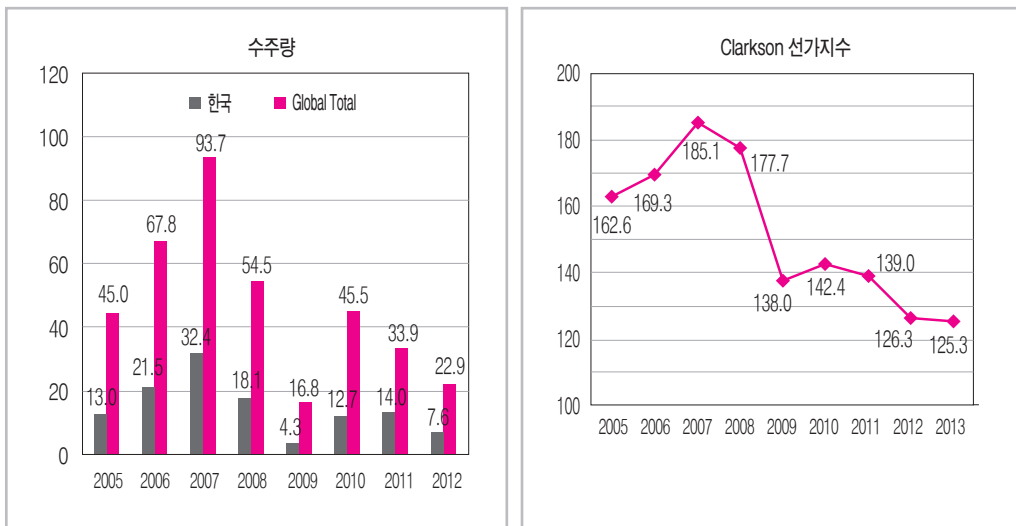
(단위: 전년동기 대비, %)

항목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4월
생산지수	2.9	4.9	0.3	4.2	8.2	6.0	7.7	10.7
출하지수	3.4	2.5	-1.2	2.6	5.7	3.2	6.7	9.0
가동률지수	7.1	-9.2	-8.4	-13.0	-11.6	-7.9	2.9	10.3
수출	15.2	-29.8	-25.4	-14.8	-46.9	-37.3	-27.0	-46.0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그림 III-1〉 조선 부문 주요지표

(단위: 백 만 CGT, point)



자료: Clarkson World Shipyard Monitor

2) 전망

- 경기회복에 따른 발주량 증가가 예상되나 일부 선종에서는 엔저 현상으로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2013년부터 회복세가 시현되나 본격적인 회복세는 2015년부터 가능
 - 경기회복에 따른 물동량 증대, 건조능력 감축, 과잉공급 해소 등으로 회복세 시현이 가능
 - 세계 건조능력 감축: 5,700만 CGT(2013) → 4,400만 CGT(2015) → 4,300만 CGT(2018)

- 중소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엔저의 영향이 클 전망
 - 대형사의 경우 주력 선종의 차이로 엔저현상의 영향이 크지 않을 전망이나 중소형사와 일부 선종(벌커, 자동차운반선 등)에서는 일본과의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

- 전반적인 경기침체 외에도 경제민주화 과정서 인력사용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어서 경쟁력 하락이 우려됨

- 사내하도급 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조선산업의 경쟁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주요 경쟁국과는 달리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에 파견근로가 금지되어 있는 현 우리나라의 상황에 사내하도급 사용마저 직접적인 규제를 받는다면 조선산업의 경쟁력은 크게 하락할 전망
 - 중국의 추격으로 일부 선종에서 가격경쟁력을 상실한 중소조선소의 사업전망은 더욱 어두워질 것이며, 엔저현상으로 일본과의 경쟁이 치열해진 일부 선종에서도 경쟁력 추가 하락이 우려됨

(2) 철강

1) 현황

- 생산·출하·재고·가동률지수 전년동기 대비 감소세 지속

- 생산출하지수 및 가동률지수는 2012년 4분기 이후 감소세 지속

- 재고지수는 올해 1분기에 감소세로 전환

- 철강업 부진은 세계경제 침체, 엔저, 중국 철강생산능력 과잉 등에 기인
 - 우선, 유럽 재정위기와 중국 성장둔화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위기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철강의 전방산업*들의 경기부진이 주요 원인
 - ※ 전방산업: 조선, 건설, 자동차, 기계 등
 - 또한 수출시장 및 경쟁품목이 일본과 중첩되고 한·일간 기술격차가 비교적 작은 가운데 엔저현상으로 인해 가격경쟁력 상실
 - 중국의 철강설비 신·증설과 공급과잉으로 인한 가격하락압력 지속

〈표 Ⅲ-4〉 철강 부문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 대비, %)

항목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4월
생산지수	7.9	0.6	1.9	0.4	3.6	-3.8	-3.5	-1.2
출하지수	8.2	0.5	0.7	1.2	3.2	-3.4	-2.4	-3.2
재고지수	15.7	6.4	7.7	4.4	3.6	6.0	-2.5	-4.2
가동률지수	1.1	0.0	-0.4	0.0	3.4	-3.2	-3.9	-1.9
수출	33.3	-3.9	8.5	3.3	-14.8	-9.3	-10.7	-14.0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2) 전망

- 상반기와 유사한 부정적 환경이 지속되면서 하반기에도 저조한 회복세에 그칠 전망
 - 세계경제 회복세가 가시화되지 않는 한 자동차, 조선, 기계 등 철강수요산업의 부진도 지속될 전망
 - 한중일 3국의 공급과잉 등으로 수출경쟁이 격화될 가능성

(3) 자동차

1) 현황

- 자동차 생산은 2012년 2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세 기록하고 있으며, 2012년 3분기 최저점 기록 이후 감소세는 다소 둔화되는 양상
 - 자동차 생산 감소세는 내수위축, 세계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수출 부진, 주말특근 미 실시 등에 주로 기인
 - 자동차 출하는 2013년 신차 출시 효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경기둔화 지속과 가계부채 부담에 따른 구매력 위축, 수입차의 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 등으로 소폭의 감소세 기록
- 자동차 재고 및 가동률 지수 역시 2012년 3분기 최저점을 기록한 후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는 양상
- 자동차 수출 역시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2012년 3분기 가장 큰 폭의 감소율을 기록한 이후 감소세가 다소 둔화되는 양상
 - 수출 감소는 해외생산 확대, 수출시장 경기 부진, 원고-엔저 현상 등에 주로 기인

〈표 III-5〉 자동차 부문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 대비, %)

항목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4월
생산지수	11.1	-3.2	5.9	-1.0	-19.9	-2.1	-4.0	-1.5
출하지수	11.7	-3.4	8.1	-1.1	-19.7	-4.4	-7.4	-0.5
재고지수	15.5	-18.6	2.8	-7.1	-25.6	-22.8	-1.0	-3.4
가동률지수	6.6	-3.5	5.9	-1.8	-20.9	-1.7	-5.3	-4.4
수출	28	4.2	27.2	6.2	-10.2	-3.1	-3.6	-2.6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2) 전망

- 2013년 하반기에도 유사한 국내외 시장 환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내 자동차 산업 경기 부진 지속 전망
- EU 및 미국 등 주요국들의 경기회복 지연, 중국 등 신흥국 시장에서의 치열한 판매 경쟁, 국내 시장에서의 수입차 점유율 확대 등으로 인해 국내외 시장에서 자동차 업체들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
- 또한 내수는 경기침체 장기화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지속적인 감소세 시현이 예상되며, 수출 역시 원화강세와 해외법인 생산 증가로 감소세를 이어갈 전망

(4) 일반기계

1) 현황

- 지난해 하반기 이후 생산·출하·가동률 전년동기 대비 감소 추세
- 생산지수: 지난해 0.1% 증가에 그친데 이어 올 1분기와 4월 각각 8.0%, 0.5% 감소
 - 출하지수도 생산지수와 유사한 흐름

- 재고지수는 지난해에는 증가하다가 올해에는 소폭 감소
- 재고·출하순환도로 볼 때, 기계산업은 지난해 하반기 경기하강기를 거쳐 올해에는 경기수축기로 진입
 - 지난해 하반기: 출하감소, 재고증가 ⇒ 경기하강¹³⁾
 - 올 1~4월: 출하감소, 재고감소 ⇒ 경기수축¹⁴⁾
- 기계산업이 부진한 데에는 국내설비투자 부진과 엔저가 주요한 원인임
- 내수의 경우, 지난해 설비투자 증가율이 크게 부진하면서 기계류에 대한 수요가 크게 위축
- 수출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이후 본격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는데 이는 엔저현상 심화시기와 거의 유사
 - 기계산업의 경우 한일 수출경합도가 0.6~0.7정도로 제조업 평균대비 높은 편

〈표 Ⅲ-6〉 일반기계 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 대비, %)

항목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4월
생산지수	10.6	0.1	7.5	-1.2	0.2	-6.4	-8.0	-0.5
출하지수	7.3	2.1	6.8	1.3	4.2	-3.7	-9.2	-2.4
재고지수	20.0	1.6	23.4	19.5	15.1	1.6	-7.8	-1.0
가동률지수	5.5	-2.8	6.6	-1.1	-6.5	-11.8	-10.5	-4.0
수출	31.0	-1.2	7.5	1.1	-13.2	-19.3	-4.0	-6.6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13) 기업들이 경기하강에 미처 대응하지 못하면서 의도하지 않은 재고가 증가

14) 기업들이 생산조정을 하면서 재고와 출하 모두 감소

2) 전망

- 기계산업, 상반기에 비해 개선되었으나 회복세는 크지 않을 전망
 - 내수의 경우, 소폭이나마 플러스로 반전될 것으로 보이는 국내설비투자가 기계에 대한 수요 증가를 견인
 - 하지만 설비투자 증가세가 크지 않아 기계생산이 크게 증가하기는 쉽지 않음
 - 수출의 경우 중국의 대규모 투자 계획, 미국 셰일가스 개발 관련 투자 등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하반기에는 플러스 증가율로 반전될 전망
 - 단, 엔저기조에 힘입은 일본제품과의 경쟁 심화로 증가폭은 제한적일 수 있음

(5) 전자

1) 현황

- 반도체 생산 및 출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12년 4분기 이후로 개선세가 뚜렷해짐
 - D램 시장에서 군소업체들이 정리되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의 과점체제로 전환되면서 가격이 상승
 - 국내 스마트폰 업계의 글로벌 시장 확대로 모바일 메모리반도체 수요가 증대되고 수급 개선에 따라 가격이 오르며 반도체 시장이 최근 급격한 상승세를 기록함

〈표 Ⅲ-7〉 반도체 제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 대비, %)

항목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4월
생산지수	27.0	8.1	9.5	0.4	1.2	16.8	16.2	15.8
출하지수	28.7	8.6	10.2	0.8	2.5	16.3	10.7	15.3
재고지수	107.9	31.6	35.9	12.8	1.4	24.0	6.7	5.8
가동률지수	-3.6	1.2	-2.5	-1.9	0.4	8.4	-2.1	-2.7
수출	-1.1	0.6	-2.3	-1.0	-1.4	6.8	5.0	12.5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은 생산, 출하, 재고 및 가동률이 지속적으로 감소
 - 최근 신규 태블릿 컴퓨터 출시를 앞둔 재고조정이 이뤄지고 있으며 프린터, 모니터 등 주변기기가 해외에서 생산되면서 국내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있음

〈표 Ⅲ-8〉 컴퓨터 및 주변장치 제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 대비, %)

항목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4월
생산지수	-0.7	-32.9	-0.2	-35.6	-125.9	-103.0	-55.6	-47.3
출하지수	-2.2	-33.7	-5.5	-36.6	-118.9	-101.5	-48.2	-47.0
재고지수	-18.3	-3.8	-21.2	-15.7	-42.8	-3.9	-30.9	-26.4
가동률지수	-9.3	16.9	10.1	-0.4	23.4	22.2	-16.2	-17.5
수출	0.4	-7.6	-5.2	0.3	-12.4	-11.5	-0.8	-6.7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 통신기기 부문은 최근 수출이 확대되었으나 4월 생산이 전년동기 대비 -20.5%로 지속적인 감소세
 - 선진 및 신흥지역 스마트 단말(스마트폰, 태블릿) 시장이 확대되면서 스마트폰과

부품 수출이 늘어나 4월 전년동기 대비 수출이 47.8% 증가하는 등 최근 통신기기의 수출 증가세가 지속

- 그러나 스마트폰의 내수부진 및 해외생산 확대의 영향으로 생산은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함

〈표 III-9〉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 대비, %)

항목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4월
생산지수	-7.5	-12.9	-10.0	-5.1	-30.2	-16.3	-26.2	-20.5
출하지수	-11.6	-16.3	-21.2	-8.7	-29.1	-20.1	-24.9	-24.9
재고지수	-44.1	-1.0	-42.9	-4.2	-39.8	-1.0	6.4	46.2
가동률지수	-19.8	-16.7	-33.0	-12.9	-21.7	-12.4	-7.3	1.2
수출	-1.1	-16.7	-32.1	-31.2	-14.9	17.7	23.2	47.8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 가전 부문은 가동률이 다소 호전되었으나 생산 및 출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내수부진이 이어지고 있어 제품 수요가 위축되면서 LCD TV, 조명기기 등 가정용 기기 생산 및 출하 부진이 지속되고 있음

〈표 Ⅲ-10〉 가정용 기기 제조업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 대비, %)

항목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4월
생산지수	-9.8	-7.8	-15.5	-3.0	-3.0	-12.8	-6.4	-7.2
출하지수	-8.5	-9.2	-19.1	-4.3	-0.9	-17.1	-4.4	-11.4
재고지수	-9.9	-2.2	-10.9	-8.5	-17.2	-2.2	-8.5	-10.0
가동률지수		-4.0	-15.0	-3.5	1.6	-1.6	3.3	1.6
수출	4.0	-5.2	-13.0	-4.1	-4.9	2.2	11.8	13.9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2) 전망

- 2013년 하반기 전자 부문에서 반도체 산업은 생산 및 수출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그 외의 부문에서는 생산 감소세의 반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중국의 ICT제품 생산규모가 확대되면서 중국 반도체 시장이 전 세계 매출의 50%를 점유할 정도로 성장함에 따라 국내 반도체 업계의 수출 확대 및 생산량 증가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통신기기 부문에서 최근 몇 년간 성장을 견인해 온 스마트폰 관련 업체들의 실적 향상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
 - 스마트폰 하드웨어 및 OS 기술 수준이 향상되면서 업체 간 차별화가 줄어든 상황이므로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가격경쟁이 심화될 것
 - 2013년 하반기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른 IT 수요 확대, TV와 컴퓨터 등 교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엔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일본과의 수출경합도가 큰 컴퓨터 및 가전부문의 성장은 미미할 것

(6) 석유·화학

1) 현황

- 석유화학제품 생산은 2013년 1분기 3.8%로 전년동기 대비 0.8%p 증가
 - 4월 증감률 6.4%로 전년동기 대비 3.7%p 증가
- 석유화학제품 출하 및 재고는 2013년 1/4분기 1.5%, 10%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0.8%p 감소, 0.3%p 증가
 - 4월 출하 및 재고 증감률은 각각 6.6%, 7.8%로 각각 전년 대비 5.7%p 증가, 2.9%p 감소
 - 작년 4분기 이후 출하감소 재고증가. 올 4월 들어 출하증가 및 재고감소로 호전되는 듯하나 관망해야 할 필요 있음
- 석유화학제품 수출은 2013년 1~5월 8.3%로 전년동기 대비 5.9%p 증가
 - 1분기 수출은 8.8%로 전년 대비 4.0%p 증가. 기저효과에 따른 수출 증가폭 확대. 중국내 석유화학시설 유지보수와 폴리에스터 수요증가가 수출확대에 기여
 - 그러나 세계 수요 둔화를 비롯해 중동과의 중국시장 수출경쟁 심화로 석유화학 수출 증가폭은 크지 않음

〈표 Ⅲ-11〉 석유화학 부문 주요 지표

(단위: 전년동기 대비, %)

항목	2011	2012					2013	
	연간	연간	1/4	2/4	3/4	4/4	1/4	4월
생산지수	3.0	4.0	3.0	4.3	5.3	3.6	3.8	6.4
출하지수	2.4	2.6	2.3	3.3	4.3	0.4	1.5	6.6
재고지수	6.3	7.2	9.7	6.7	5.9	7.2	10.0	7.8
가동률지수	-0.9	0.2	-0.4	1.4	0.4	-0.5	-1.0	2.2
수출	27.6	0.6	4.8	-2.8	-4.7	6.0	8.8	10.3

주: 생산동향지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기준; 수출, 석유화학제품(MPI 21)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2) 전망

- 글로벌 경기회복 지연과 중국경제 저성장 국면 진입에 따른 수요 부진이 장기화 되면서 석유화학산업 전망 흐림
 - 글로벌 경기침체와 중국의 석유화학제품 수요 부진 장기화
 - 최대수출시장인 중국 범용 석유화학제품 수요 둔화 및 수출단가하락으로 인해 하반기 생산과 수출증가폭 상승제약
 - 셰일가스 생산 확대로 석유화학제품의 글로벌 시장구조 재편 예상
 - 셰일가스, 타이트오일, 석탄량이 풍부한 미국의 경쟁력 강화로 석유화학 산업의 글로벌시장 판도 변화 불가피
 - 미국, 중국, 유럽을 중심으로 셰일가스 화학제품의 글로벌 공급증가. 셰일가스기반 설비 확대로 에틸렌 계열 제품의 가격경쟁력 약화와 유가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하락 예상
- 석유화학제품은 한·일 수출경합도가 낮고 수출품목이 차별화되어서 엔저의 영향은 제한적일 듯

- 석유화학제품의 한·일 간 경합도는 2002년~2013년 평균 60% 수준
 - 대일교역 한국은 비교열위, 수입특화상태
 - 한국 수출 품목은 범용제품이 약 85%인 것에 비해 일본은 대부분 고부가가치 특화제품임
- 한·일 간 석유화학 수출품목의 차별성 높아
 - 양국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석유화학 3대 유도품(합섬원료, 합성수지, 합성고무) 수입에서 점유율은 한국이 일본보다 더 높은 품목이 많지만 수입단가는 일본이 한국보다 높음
 - 한·일 간 석유화학제품의 품질격차 존재
 - 중저가 범용제품 수출부문에서는 일본보다는 중동, 대만, 동남아와 경쟁 치열할 전망

3. 산업별 엔저의 영향 분석

(1) 한·일 산업별 월간 수출경합도¹⁵⁾

- 한·일 수출경합도가 클수록 엔저가 우리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질 수 있음
- 자동차, 전기전자, 선박산업에서 한·일 간 매우 높은 수출경합관계가 있으며 엔저로 인한 수출경쟁력 저하 가능성이 작지 않을 것으로 추정
 - 조선(기타수송장비) 산업의 한·일 수출경합도는 2012년 1월 90% 수준에서 그 이후로 급격히 감소하여 2012년 12월에는 68%까지 감소
 - 2013년 4월엔 70% 수준으로 여전히 높은 경합도를 보이나 장기평균(0.83)에 비해 크게 낮아진 수준을 유지
 - 자동차(자동차 및 부품), 전기전자산업(특히 반도체 및 컴퓨터 산업)의 한·일 수출경합도는 약 90% 수준으로 매우 높음

15) 엔저의 산업별 영향 분석을 위해 2012년 1월 이후 한·일 제조업 업종별 월간 수출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6개 주력 수출산업의 수출경합도 분석

- 석유화학, 철강, 기계산업의 한·일 수출경합도는 대략 60% 수준으로 비교적 엔저의 영향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표 Ⅲ-12〉 한·일 산업별 수출경합도 추이(2012년 기준)

(단위: 전년동기 대비, %)

코드	산업분류	201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	〈제조업〉	0.60	0.61	0.61	0.60	0.60	0.62	0.61	0.58	0.60	0.58	0.60	0.60
2	화학	0.58	0.56	0.56	0.55	0.55	0.54	0.57	0.55	0.56	0.55	0.58	0.58
3	플라스틱, 고무	0.61	0.63	0.64	0.62	0.63	0.63	0.61	0.62	0.62	0.63	0.62	0.62
4	비금속광물제품	0.50	0.54	0.54	0.54	0.50	0.55	0.53	0.50	0.53	0.53	0.53	0.52
5	철강	0.60	0.64	0.62	0.65	0.61	0.63	0.59	0.61	0.62	0.62	0.53	0.61
6	전기전자	0.64	0.65	0.63	0.62	0.63	0.61	0.63	0.65	0.63	0.62	0.64	0.65
7	반도체	0.86	0.88	0.87	0.85	0.86	0.85	0.85	0.86	0.85	0.84	0.84	0.84
8	통신기기	0.46	0.47	0.47	0.44	0.47	0.42	0.45	0.50	0.43	0.40	0.42	0.48
9	가전기기	0.60	0.63	0.61	0.61	0.60	0.60	0.61	0.61	0.61	0.58	0.59	0.59
10	컴퓨터	0.90	0.92	0.84	0.98	0.99	0.94	0.91	0.93	0.93	0.94	0.82	0.98
11	기계장비	0.57	0.60	0.60	0.59	0.58	0.60	0.58	0.57	0.57	0.56	0.57	0.58
12	기계	0.66	0.67	0.71	0.68	0.67	0.71	0.68	0.68	0.68	0.65	0.67	0.68
13	정밀기기	0.41	0.45	0.40	0.42	0.42	0.44	0.44	0.44	0.43	0.44	0.45	0.44
14	자동차 및 부품	0.90	0.91	0.90	0.91	0.92	0.91	0.88	0.85	0.90	0.91	0.91	0.90
15	기타수송장비	0.92	0.72	0.75	0.84	0.83	0.87	0.85	0.78	0.87	0.78	0.58	0.68

주: 생산동향지수,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기준; 수출, 석유화학제품(MTI 2) 기준

자료: 통계청, 한국무역협회

〈표 III-13〉 한·일 산업별 수출경합도 추이(2013년 기준)

(단위: 전년동기 대비, %)

코드	산업분류	2013년				2002~2011년 장기평균
		1월	2월	3월	4월	
1	〈제조업〉	0.62	0.59	0.61	0.60	0.60
2	화학	0.60	0.59	0.60	0.60	0.54
3	플라스틱, 고무	0.65	0.62	0.64	0.64	0.61
4	비금속광물제품	0.53	0.52	0.54	0.50	0.55
5	철강	0.60	0.57	0.58	0.57	0.60
6	전기전자	0.65	0.64	0.65	0.64	0.68
7	반도체	0.87	0.85	0.87	0.88	0.83
8	통신기기	0.52	0.55	0.51	0.47	0.67
9	가전기기	0.58	0.60	0.59	0.60	0.61
10	컴퓨터	0.95	0.96	0.93	0.94	0.82
11	기계장비	0.56	0.56	0.57	0.58	0.57
12	기계	0.65	0.65	0.65	0.66	0.67
13	정밀기기	0.42	0.42	0.43	0.43	0.42
14	자동차 및 부품	0.92	0.89	0.89	0.92	0.90
15	기타수송장비	0.88	0.78	0.82	0.70	0.83

주: 한국과 일본의 HS 4자리 단위 수출액을 2자리로 합산하여 월간 수출경합도 산정.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Ⅲ-14〉 한·일 제조업 업종별 수출경합도 장기패턴 분석

	구분	장기평균 수출경합도 (2002년~2011년)	
		높음(0.6 이상)	낮음(0.6 미만)
수출경합도 (2012.1 ~2013. 4월)	매우 높음 (0.7 이상)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0.90, 0.90), 반도체(0.86, 0.83), 컴퓨터(0.93, 0.82), 기타수송장비(0.79, 0.83)	
	높음 (0.6~0.7)	기계(0.67, 0.67), 철강(0.60, 0.60), 가전기기(0.60, 0.61), 플라스틱 및 고무(0.63, 0.61)	
	비교적 낮음 (0.5~0.6)		비금속광물(0.52, 0.55), 화학제품(0.57, 0.54)
	낮음 (0.5미만)	통신기기(0.47, 0.67)	정밀기기(0.43, 0.42)

주: 1) 수출경합도는 HS코드 4단위 기준으로 작성

2) 장기평균 수출경합도는 2002~2011년 연간 수출경합도의 평균 값

3) 괄호 안 수치는 (2012. 1~2013. 4월 월평균 수출경합도, 2002~2011년 장기평균 수출경합도)를 나타냄

- 한·일 수출경합도는 자동차, 전기전자, 선박 등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컴퓨터 제조업의 경합도는 최근 크게 증가
 -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전기전자(반도체 및 컴퓨터), 조선(기타수송장비) 산업에서 한·일 수출경합도는 장기간 80%~90% 사이의 매우 높은 경합도 유지
 - 특히 전기전자 산업 중 컴퓨터 제조업의 경우 2012년 1월 이후 월평균 수출경합도가 장기평균에 비해 11%p 이상 증가하며 한·일 간 수출경합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음을 보여줌
 - 반면 통신기기 산업의 수출경합도는 최근 급격히 감소
 - 2012년 1월 이후 평균은 장기평균(0.67)에 비해 0.20%p 하락한 0.47

- 기계, 철강, 가전기기 산업의 수출경합도는 장기간 약 60% 수준 유지
 - 정밀기기 제조업의 경합도는 오랜 기간 낮은 수준 유지
-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산업은 다른 주력수출 업종에 비해 50% 수준의 비교적 낮은 경합도를 보임
- 전통적으로 한·일 수출경합도가 높은 산업과 최근 경합도가 상승한 산업의 수출 변동 요인을 분석할 필요
- 전통적으로 한·일 간 수출경합도가 높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전기전자(반도체 및 컴퓨터), 조선(기타수송장비) 산업의 최근 수출 변동 요인을 파악할 필요
 - 특히, 2012년 1월 이후 한·일 간 수출경합도가 크게 상승한 컴퓨터 제조업의 수출 변동 요인을 분석할 필요

(2) 산업별 수출함수 추정

- 최근 업황 악화의 주원인으로 되고 있는 글로벌 경기둔화와 엔저의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수출함수모형을 설정하여 추정

- 추정모형:
$$dln(Ex_t^i) = \alpha + \beta_1 dln(Wgdp_t) + \beta_2 dln(Wgdp_{t-1}) + \beta_3 dln[(Won/Yen)_t] + \beta_4 dln[(Won/Yen)_{t-1}] + \epsilon_t$$

- dln 은 로그차분(원계열이므로 전년동기 차분)
- ex_t^i 는 i 산업의 수출금액(달러)
- $Wgdp$ 는 세계GDP(실질, IMF기준)
- Won/Yen 은 원/100엔 환율
- 분석기간은 2000년 1분기~2013년 1분기
- 계수값 $\beta_1, \beta_2, \beta_3, \beta_4$ 의 의미
 - β_1, β_2 는 각각 당기와 1분기전의 세계경제성장률과 각 업종의 수출증가율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수로 이 둘을 합산한 값을 통해 글로벌 경기와 업종수출의 관계를 파악

- β_3, β_4 는 각각 당기와 1분기전의 원/엔 환율 변동과 각 업종의 수출증가율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수. 이 둘을 합산한 값을 통해 엔저가 수출에 미치는 관계를 파악
- 분석 결과, 수출은 글로벌 경기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정(+)의 유의한 값을 보였지만 엔저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방향 및 크기가 많은 차이를 보임
 - 세계경제성장률이 업종별 수출에 미치는 효과($\beta_1 + \beta_2$)는
 - 반도체, 일반기계, 컴퓨터, 자동차, 석유화학, 철강, 가전 등이 매우 높은 영향을 받는 반면
 - 무선통신기기와 선박은 그 크기도 상대적으로 작을 뿐 아니라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음
 - 무선통신기기 및 선박의 경우 글로벌 경기상황과는 다소 달리 우리의 해당시장의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온 결과로 해석됨
 - 원/엔 환율이 업종별 수출에 미치는 효과($\beta_3 + \beta_4$)는
 - 철강과 일반기계가 엔저에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였으며 반도체와 컴퓨터는 시차를 두고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함
 - 업종별로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당히 차이를 보임
 - 글로벌 경기, 엔저에 모두 영향을 받는 업종: 철강, 반도체, 컴퓨터, 일반기계
 - 글로벌 경기에 민감한 업종: 석유화학, 가전, 자동차
 - 글로벌 경기, 엔저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업종: 무선통신기기, 선박
 - 일반적으로 한·일 수출경합도가 높은 업종이 엔저의 영향을 더 받지만 경합도가 높더라도 상대적으로 엔저의 영향이 낮은 업종도 존재
 - 이는 업종별 수출 부진 탈출전략이 상이함을 의미

〈표 III-15〉 수출함수 추정 결과

변수명	wgdp	wgdp(-1)	won/yen	won/yen(-1)	상수	
계수	β_1	β_2	β_3	β_4	α	
산업	석유화학	10.85**	14.76**	0.11	0.69	-0.08*
	철강	7.84*	13.19**	0.80*	1.10**	-0.05
	반도체	18.69**	21.91**	-0.04	1.14*	-0.28**
	컴퓨터	17.12**	16.24**	0.22	0.81*	-0.32**
	무선통신기기	0.71	3.07	-0.27	0.12	0.06
	가전	8.71**	12.20**	-0.01	0.47	-0.15**
	일반기계	17.53**	18.10**	0.59*	0.64*	-0.16**
	자동차	10.39**	13.96**	0.51	0.03	-0.09*
	선박	-1.61	5.63	0.77	1.22	0.08

4. 시사점

- 엔저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업종의 기업들은 비가격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함
 - 품질제고 및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단기적, 장기적 관점에서 비가격 경쟁력 확보하여 상대가격 변동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해야 함
 - 신제품 개발, 특화제품의 차별화 등을 통해 동일 산업 내에서도 일본과의 직접적인 경쟁 분야를 줄이는 것도 중요한 대책 중 하나. 이는 경쟁회피보다는 신시장 개척의 의미가 큼
 - 대기업의 경우 현지 마케팅 강화를 통한 브랜드가치 제고가 필요
 - 단기적으로는 엔저현상의 이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함. 예를 들어, 일본으로부터의 부품 및 소재 수입은 엔저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예상되므로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보다 다양한 형태의 현지화를 통해 비가격 경쟁력 제고 필요
 - 장기적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환율의 영향을 덜 받는 수요지 근접 해외 생산기지

- 의 확대가 필요. 단, 단순히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해외로 진출하는 것은 국내 일자리문제 및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대신, 새로운 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 생산기지 확대는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함
- 상대적으로 경기침체의 영향을 덜 받은 동남아 및 중남미 신흥시장 개척 강화 필요
- 정부는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고 비가격 경쟁력 제고도 적극 지원해야 함
- 원고-엔저 현상의 장기화에 대비해 급격한 환율변동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환율 변동성 확대를 예방하기 위해 외화자금의 급격한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기업의 비가격 경쟁력 제고를 적극 지원
 - R&D 투자세액공제 확대를 통해 적극적인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지원. 특히, 일본과의 경쟁이 가능한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
 - 고부가가치화 및 일본제품과의 차별화를 위한 첨단설비 설치를 지원
 - 엔저현상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장치 마련
 - 중소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일부 중소기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확대
 - 단기적으로 일본 부품 및 소재의 수입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이런 현상이 장기화될 경우에 대비해 대일 부품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R&D 적극 지원
 - 선진국들의 경기 부진이 지속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 움직임이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강화
 - 선진국은 최근 경기 불황속에서 자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주의 조치 도입 경향 증가
 - 선진국 경기침체가 중국 및 신흥국으로 확산되면서 신흥국의 보호주의 확산 가능성도 커짐

- 정부는 산업 및 사업장 규모별 특성을 고려하여 원활한 시장기능이 작동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집중해야 함
- 조선업의 경우 제작금융 규모 확대 및 금융기관 여신관리제도 개선을 통한 제작금융 활용도 제고 필요
 - heavy-tail 방식에서의 지불구조 변경, 건조자금이 많이 필요한 해양플랜트 비중 증가 등을 고려해 제작금융시장의 확대 유도
 - ‘소진한도’(여신 총액을 설정한 방식) 방식 한도 설정을 개선해 활용 가능 자금이 갈수록 부족해지는 현상을 시정해야 함
- 유연한 인력활용이 절실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산업의 체질개선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필요
 - 조선산업처럼 사내하도급과 같은 유연한 인력활용이 반드시 필요한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사용에 대한 직접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는 가급적 지양해야 함
- 중소 제조업 사업장의 경우 환율변동에 의해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홍보해야 함
 - 예를 들어, 일본과의 경쟁 격화, 주력시장인 상선시장의 침체 등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사에 대해 환변동보험 확대 필요

부록

주요 경제지표

경제성장률 · 소비 · 투자

구분	경제성장률		1인당 GNI	소비		투자		
	GDP	제조업		민간	정부	총고정투자	설비	건설
	전년동기 대비(%)		US \$	전년동기 대비(%)				
2007년	5.1	7.2	21,632	5.1	5.4	4.2	9.3	1.4
2008년	2.3	2.9	19,161	1.3	4.3	-1.9	-1.0	-2.8
2009년	0.3	-1.5	17,041	0.0	5.6	-1.0	-9.8	3.4
2010년	6.2	14.8	20,562	4.1	3.0	7.0	25.0	-1.4
2011년	3.6	7.1	20,489	2.2	2.3	-2.1	3.8	-6.5
2006년 1/4	6.1	9.4		5.7	6.0	3.8	7.2	1.9
2/4	5.1	9.1		4.5	6.7	0.1	8.0	-4.2
3/4	5.0	8.7		4.3	6.0	4.0	12.0	-0.5
4/4	4.6	5.4		4.5	7.5	5.7	5.7	5.1
2007년 1/4	4.5	4.5		4.9	5.9	7.3	12.6	4.4
2/4	5.3	7.2		5.2	6.3	5.7	13.0	2.0
3/4	4.9	6.3		5.4	4.8	1.5	4.0	-0.2
4/4	5.7	10.2		4.7	4.7	3.1	8.0	0.4
2008년 1/4	5.5	8.9		4.5	3.6	-0.6	2.8	-2.5
2/4	4.4	8.3		2.7	4.3	0.6	2.0	-0.5
3/4	3.3	5.3		1.8	4.6	2.1	5.3	0.4
4/4	-3.3	-9.4		-3.6	4.7	-8.7	-13.3	-7.7
2009년 1/4	-4.2	-13.6		-4.7	7.8	-7.5	-21.9	1.6
2/4	-2.1	-7.1		-1.1	7.3	-3.0	-18.1	4.3
3/4	1.0	1.8		0.4	5.3	-1.0	-9.4	3.2
4/4	6.3	13.1		5.6	2.2	6.2	12.2	4.0
2010년 1/4	8.7	22.4		6.9	3.3	11.2	29.6	1.8
2/4	7.6	17.6		3.9	2.8	5.8	32.0	-4.7
3/4	4.5	9.5		3.9	2.4	5.6	26.3	-4.9
4/4	4.9	11.0		3.0	3.2	2.3	16.9	-5.2
2011년 1/4	4.2	10.0		2.9	1.4	-2.1	10.3	-11.0
2/4	3.5	7.5		3.0	1.8	0.7	7.7	-4.2
3/4	3.6	6.3		2.1	3.3	-1.5	1.2	-4.0
4/4	3.3	5.4		1.1	1.8	-1.8	-3.3	-2.1
2012년 1/4	2.8	4.1		1.6	4.7	4.6	8.6	1.5
2/4	2.3	2.6		1.1	3.6	-2.1	-3.5	-2.1
3/4	1.5	1.1		1.6	3.1	-2.3	-6.5	-0.2
4/4	1.5	1.3		2.8	3.1	-4.1	-5.1	-4.1
2013년 1/4	1.5	1.7		1.5	2.2	-	-11.9	2.4

무역 · 국제수지

구 분	무 역				국제수지		외환보유액 ¹⁾ (기말)	대미환율 (기말)
	수출(FOB)		수입(CIF)		상품	경상		
	억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달러	전년동기 대비(%)	억달러		원/달러	
2006년	3,254.6	14.4	3,093.8	18.4	314.3	140.8	2,389.6	929.6
2007년	3,714.9	14.1	3,568.5	15.3	371.3	217.7	2,622.2	938.2
2008년	4,220.1	13.6	4,352.7	22.0	51.7	32.0	2,012.2	1,257.5
2009년	3,635.3	-13.9	3,230.8	-25.8	378.7	327.9	2,699.9	1,167.6
2010년	4,663.8	28.3	4,252.1	31.6	400.8	293.9	2,915.7	1,138.9
2011년	5,565.1	19.3	5,243.7	23.3	321.0	276.6	3,064.0	1,153.3
2010년 7월	404.2	26.7	350.0	28.7	52.7	44.6	2,859.6	1,187.2
8월	364.1	26.0	352.7	28.7	28.3	19.8	2,853.5	1,189.1
9월	394.1	16.2	350.0	17.6	44.5	35.0	2,897.8	1,142.0
10월	433.4	27.6	370.0	21.7	54.9	51.1	2,933.5	1,126.6
11월	412.6	21.4	386.7	30.9	31.7	19.3	2,902.3	1,157.3
12월	441.5	22.6	400.6	21.7	36.8	21.1	2,915.7	1,138.9
2011년 1월	444.7	44.7	419.8	33.1	15.6	1.5	2,959.6	1,114.3
2월	384.7	16.4	364.0	17.3	15.3	11.3	2,976.7	1,127.9
3월	480.5	28.8	455.7	28.1	27.5	13.3	2,986.2	1,107.2
4월	485.4	23.5	441.9	24.4	33.3	12.8	3,072.0	1,072.3
5월	473.3	21.7	452.8	29.9	16.3	21.8	3,050.8	1,080.6
6월	467.4	11.1	448.2	27.1	27.0	20.3	3,044.8	1,078.1
7월	489.5	21.1	443.0	25.1	47.3	37.7	3,110.3	1,052.6
8월	457.9	25.5	453.8	28.7	3.7	2.9	3,121.9	1,071.7
9월	465.1	18.0	452.8	29.4	21.0	28.3	3,033.8	1,179.5
10월	466.1	7.6	427.1	15.4	35.5	41.3	3,109.8	1,104.5
11월	460.1	11.5	430.1	11.2	40.0	45.6	3,086.3	1,150.3
12월	477.4	8.2	454.9	13.6	27.0	28.1	3,064.0	1,153.3
2012년 1월	412.2	-7.3	434.8	3.6	-16.2	-9.7	3,113.4	1,125.0
2월	463.2	20.4	450.4	23.7	13.1	5.6	3,158.0	1,126.5
3월	473.4	-1.5	450.4	-1.2	29.3	29.7	3,159.5	1,137.8
4월	461.1	-5.0	439.8	-0.5	17.5	17.3	3,168.4	1,134.2
5월	469.2	-0.9	445.4	-1.6	17.2	35.7	3,108.7	1,177.8
6월	471.8	0.9	420.5	-6.2	50.5	58.8	3,123.8	1,153.8
7월	446.8	-8.7	419.5	-5.3	53.4	61.4	3,143.5	1,136.2
8월	430.5	-6.0	410.4	-9.6	25.1	25.0	3,168.8	1,134.6
9월	454.2	-2.3	425.2	-6.1	54.9	59.1	3,220.1	1,118.6
10월	471.5	1.1	434.2	1.7	51.7	57.8	3,234.6	1,094.1
11월	478.0	3.9	433.2	0.7	67.8	69.1	3,260.9	1,084.7
12월	448.8	-6.0	430.7	-5.3	19.2	21.4	3,269.7	1,071.1
2013년 1월	456.8	10.8	452.1	4.0	26.0	22.5	3,289.1	1,082.7
2월	423.5	-8.6	402.7	-10.5	25.6	27.1	3,273.9	1,085.4
3월	473.6	0.1	441.2	-2.1	41.6	49.3	3,274.1	1,112.1
4월	462.7	0.4	438.2	-0.3	35.9	39.7	3,288.0	1,108.1
5월	-	-	-	-	-	-	3,280.9	1,128.3

주: 1) 가용외환보유액 기준

물가·실업·이지율

구분	물가 ²⁾		실업률 (계절조정)	제조업 명목임금	통화 ³⁾		회사채 수익률	주가지수 80,1.4=100
	생산자	소비자			신M2	M3		
	전년동기 대비(%)		(%)	전년동기 대비(%)		연%, 평균	기간평균	
2007년	1.4	2.5	3.2	6.6	11.2	10.2	5.70	1,712.5
2008년	8.5	4.7	3.2	-0.4	14.3	11.9	7.02	1,529.5
2009년	-0.2	2.8	3.6	2.2	10.3	7.9	5.81	1,429.0
2010년	3.8	3.0	3.7	9.1	8.7	8.2	4.66	1,765.0
2011년	6.7	4.0	3.4	1.6	4.2	5.3	4.41	1,983.4
2012년	0.7	2.2	3.2	6.2	4.2	5.3	4.41	1,983.4
2010년 7월	3.8(3.1)	2.5(1.8)	3.7(3.7)	10.6	9.3	8.8	4.81	1,731.1
8월	3.5(3.4)	2.7(2.3)	3.3(3.4)	6.9	8.5	8.0	4.68	1,762.2
9월	4.0(4.0)	3.4(3.1)	3.4(3.7)	18.5	8.1	7.7	4.41	1,815.8
10월	5.2(4.3)	3.7(3.1)	3.3(3.5)	3.8	7.6	7.2	4.13	1,889.7
11월	5.2(4.7)	3.0(2.6)	3.0(3.2)	12.5	7.4	7.3	4.19	1,924.7
12월	5.7(5.7)	3.0(3.0)	3.5(3.5)	4.5	7.2	6.9	4.17	2,002.5
2011년 1월	6.8(1.5)	3.4(1.2)	3.8(3.6)	12.9	6.5	6.6	4.52	2,091.6
2월	7.4(2.3)	3.9(1.9)	4.5(4.0)	-11.2	5.0	5.2	4.72	2,002.9
3월	8.2(3.5)	4.1(2.3)	4.3(4.0)	6.3	4.3	4.7	4.54	2,002.7
4월	8.1(4.2)	3.8(2.4)	3.7(3.6)	-0.6	3.9	4.5	4.54	2,153.1
5월	7.5(4.5)	3.9(2.6)	3.2(3.3)	3.9	3.7	4.4	4.44	2,121.9
6월	7.2(4.3)	4.2(2.8)	3.3(3.3)	0.5	3.0	4.1	4.40	2,074.6
7월	7.0(4.4)	4.5(3.3)	3.3(3.3)	5.2	3.2	4.6	4.48	2,150.1
8월	6.9(4.5)	4.7(4.0)	3.0(3.1)	10.9	4.0	5.6	4.29	1,869.4
9월	6.3(4.6)	3.8(3.9)	3.0(3.2)	-9.3	4.2	5.7	4.24	1,791.0
10월	5.8(4.5)	3.6(3.7)	2.9(3.1)	7.5	4.4	6.1	4.29	1,825.9
11월	5.1(4.2)	4.2(3.8)	2.9(3.1)	-0.8	4.4	6.2	4.24	1,858.8
12월	4.3(4.3)	4.2(4.2)	3.0(3.1)	-0.8	4.4	6.2	4.24	1,863.2
2012년 1월	3.2(0.5)	3.4(0.5)	3.5(3.2)	20.3	4.8	6.5	4.24	1,891.0
2월	3.1(1.2)	3.1(0.9)	4.2(3.7)	3.3	5.3	7.2	4.25	2,003.2
3월	2.4(1.7)	2.6(0.8)	3.7(3.4)	6.7	5.7	8.7	4.36	2,023.4
4월	1.9(1.7)	2.5(0.8)	3.5(3.4)	7.1	5.5	8.6	4.25	1,995.9
5월	1.0(1.2)	2.5(1.0)	3.1(3.2)	5.3	5.5	8.4	4.01	1,886.4
6월	0.0(0.0)	2.2(0.9)	3.2(3.2)	5.9	5.9	8.5	3.87	1,848.6
7월	-0.6(-0.5)	1.5(0.7)	3.1(3.1)	0.1	6.0	8.4	3.60	1,826.8
8월	-0.1(0.1)	1.2(1.0)	3.0(3.1)	-2.4	5.7	7.8	3.40	1,918.9
9월	0.2(0.5)	2.0(1.7)	2.9(3.1)	16.6	5.2	7.6	3.31	1,961.3
10월	-0.5(-0.3)	2.1(1.6)	2.8(3.0)	1.9	4.6	7.1	3.30	1,942.2
11월	-0.9(-1.0)	1.6(1.2)	2.8(3.0)	4.7	4.4	7.1	3.32	1,904.7
12월	-1.2(-1.2)	1.4(1.4)	2.9(3.0)	4.7	4.5	7.3	3.30	1,973.8
2013년 1월	-1.6(0.2)	1.5(0.6)	3.4(3.2)	-5.9	4.8	7.7	3.20	1,986.1
2월	-1.6(0.9)	1.4(0.8)	4.0(3.5)	23.0	5.3	8.1	3.06	1,979.9
3월	-2.4(0.5)	1.3(0.7)	3.5(3.2)	4.7	5.0	6.8	2.95	1,990.0
4월	-2.8(0.1)	1.2(0.6)	3.2(3.1)	-	5.1	6.9	2.91	1,938.9
5월	-	1.0(0.6)	3.0(3.2)	-	-	-	2.96	1,974.5

주: 2) ()안은 전년말월 대비 증감율, 3) 평잔 기준

산업활동

구분	산업생산		수요관련지표						
	제조업	평균 가동률(%)	소매 판매액 ⁴⁾	국내기계 수주 ⁵⁾	설비투자 추계	건설 수주	건설기성	전년동기대비(%)	
								공공	민간
2006년	8.4	80.0	4.0	17.4	9.2	9.0	2.6	0.6	4.0
2007년	6.9	80.1	5.2	20.6	8.2	23.6	6.6	8.4	4.6
2008년	3.4	77.6	1.1	-14.1	-2.3	-7.6	4.9	6.5	2.2
2009년	-0.1	74.4	2.7	-10.4	-9.4	5.0	3.2	21.2	-5.8
2010년	16.3	80.9	6.7	8.3	25.1	-17.7	2.7	8.5	0.5
2011년	6.9	79.9	4.3	11.0	0.5	4.0	-0.9	1.2	-3.3
2010년 10월	13.3	79.5	4.3	7.3	19.5	-58.9	1.2	10.4	-4.2
11월	11.2	80.5	6.9	-11.1	11.8	-47.9	-0.8	16.2	-9.4
12월	10.8	82.3	4.6	31.1	7.4	-21.5	8.4	18.5	-0.2
2011년 1월	13.4	83.6	11.0	15.6	19.4	-31.9	-4.5	9.5	-12.5
2월	8.6	81.8	-0.4	28.0	-0.2	-16.0	-14.7	-12.6	-17.2
3월	9.1	81.3	5.5	16.2	-0.2	14.2	-0.8	-2.7	-0.2
4월	6.8	79.4	5.2	9.0	2.2	0.1	-4.0	3.8	-10.7
5월	8.3	79.9	6.1	-0.8	11.7	-21.0	-4.0	-0.8	-6.9
6월	6.4	80.5	5.8	21.4	3.5	14.1	4.7	3.3	0.7
7월	3.7	79.9	5.5	-1.7	-3.0	-32.8	-8.9	-9.7	-8.3
8월	4.8	79.8	5.6	6.8	-2.9	72.8	-3.4	2.2	-7.1
9월	7.4	79.0	2.9	6.1	-3.2	-3.9	5.3	9.2	1.3
10월	6.6	78.8	2.4	18.0	-10.9	61.4	8.8	3.9	12.4
11월	5.7	78.4	1.2	33.9	-2.8	14.1	-0.9	-0.1	-2.3
12월	2.9	76.9	2.0	-9.6	-1.0	15.0	7.1	3.4	10.4
2012년 1월	-2.1	80.5	0.8	0.1	4.9	42.8	-5.0	-10.2	-2.7
2월	14.4	81.0	5.4	21.8	24.4	100.4	13.9	17.3	12.4
3월	0.6	78.1	0.1	-25.1	1.3	-3.5	-4.1	2.6	-8.0
4월	0.0	79.2	0.3	-6.9	5.1	-4.4	-4.8	-4.2	-4.0
5월	2.9	79.3	2.2	-10.9	-1.3	2.9	-3.9	0.2	-5.3
6월	1.6	78.1	0.6	-33.3	-4.5	2.6	-14.3	-12.7	-13.1
7월	0.2	77.0	2.7	-6.8	1.3	23.8	1.5	-4.5	3.4
8월	0.2	73.7	-0.4	-12.8	-14.4	-29.9	-7.9	-9.3	-5.1
9월	0.7	75.2	2.3	-7.5	-8.1	-14.8	-5.2	-2.1	-1.8
10월	-0.8	75.9	2.0	-18.1	-0.7	-22.7	-11.5	-14.0	-6.7
11월	1.9	78.0	4.0	42.2	-10.8	-20.0	2.2	-6.2	10.5
12월	-0.5	78.4	2.0	49.0	-6.3	-43.0	-7.9	-8.8	-6.2
2013년 1월	8.0	78.6	-2.7	48.4	-15.7	-52.7	9.0	-2.0	18.3
2월	-9.8	77.2	1.6	-54.3	-22.5	-47.0	4.0	-0.7	8.3
3월	-3.0	75.5	1.7	-4.4	-8.1	-20.7	3.4	-11.7	16.6
4월	1.8	75.9	2.2	106.3	-12.4	-20.6	18.4	7.4	27.1

주: 4) 내수용, 5) 내수용, 선박 제외

keri 경제전망과 정책과제

1판 1쇄 인쇄 / 2013년 7월 17일

1판 1쇄 발행 / 2013년 7월 19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최병일

편집인 / 최병일

등록번호/제318-1982-000003호

(150-705)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전화(대표) 3771-0001 (직통) 3771-0048 팩스 785-0270~1

<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3

한국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간행물은
전국 대형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구입문의) 3771-0048

keri 한국경제연구원

150-705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7-3 하나대투증권빌딩 8층
전화 : (대표)3771-0001 (직통)3771-0048 팩스 : 785-0270~1



값 7,000원

www.keri.org